

낯설고 익숙한 «보고서\보고서»

김병조
예일대학교, 미국

주제어.
보고서\보고서, 안상수, 잡지,
미감, 타이포그래피

투고: 2017년 6월 8일
심사: 2017년 6월 9-12일
게재 확정: 2017년 6월 30일

Unfamiliar, yet Familiar «bogoseo\bogoseo»

Kim Byungjo
Yale University, USA

Keywords.
Bogoseo\bogoseo,
Ahn Sangsoo, Magazine,
Aesthetics, Typography

Received: 8 June 2017
Reviewed: 9-12 June 2017
Accepted: 30 June 2017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기획, 아트 디렉션을 문화 잡지 «보고서\보고서»에서 나타나는 그의 과거를 향하는 파괴적 미감과 종합적 활동 방식의 역사적 맥락과 의의에 대해 논구한다.

먼저 «보고서\보고서»에 관한 우리의 경험을 검토하기 위해 발행일, 판형, 차례, 판권 등 객관적 정보를 수집, 정리한다. 각 호의 조형 감각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상수만의 파괴적 아름다움, 과거를 향하는 시간 감각을 탐구한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컴퓨터의 빠른 도입과 문자의 과거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그의 토착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 다음, «보고서\보고서»에서 기획부터 편집, 디자인, 출판까지 아우르는 안상수의 종합적 활동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의의에 관해 논의한다.

«보고서\보고서»와 안상수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미래에 이뤄질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작업에, 나아가 1980-1990년대 활약한 앞선 세대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destructive aesthetics oriented toward the past found in «bogoseo\bogoseo», the culture magazine created by Korean graphic designer Ahn Sangsoo from 1988 until 2000, as well as the historical context and meaning of his comprehensive activity.

First, in order to verify our experience about «bogoseo\bogoseo»,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issues such as published date, format, contents, publication rights were collected and arranged. By analyzing in detail each issue's formative sense, we explore the destructive beauty and time sense oriented toward the past, proper to Ahn Sangsoo. Early of the computer and studies on the history of letters, and the embrace of Korean aesthetics in his style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the scope of Ahn's legacy. Finally, the comprehensive activity shown in «bogoseo\bogoseo», comprised of planning, editing, designing, and publishing, will be dealt with in terms of his personal and social context and of its historical importance.

«bogoseo\bogoseo» and Ahn Sangsoo will be evaluated extensively in the future. I hope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studies on the former generation of designers who were active in the 1980-1990s in Korea.

1. 서론

«보고서\보고서» (이하 «보고서»)는 왜 낯선가. 안상수¹가 기획, 아트 디렉션, 발행한 «보고서»는 1980-1990년대 선구적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위적, 실험적 같은 수사만 바뀔 뿐 한글 타이포그래피 영역의 성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는 지금 보아도 어딘가 낯설다. 이 낯섬은 이 잡지가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 한글 타이포그래피라는 기술적 범주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20-30년 전 발행된 이 작품이 2017년의 타이포그래피에게 낯설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낯선 감각에서 출발해 안상수 고유의 미감이 형성된 배경을 추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고서»는 익숙하다. 잡지의 판권을 보면, 안상수는 기획자(편집 위원), 저자, 아트 디렉터, 발행인이었다. 콘텐츠 생산을 주도하는 이러한 활동 방식은 기획부터 집필, 번역, 편집, 디자인, 유통, 비평까지 전방위로 활약하는 동시대 그래픽 디자이너의 활동과 유사하다. 그래픽 디자인이 제품 생산과 광고의 한 단계로 인식되던 1980년대에 그렇게 활동하게 된 배경과 역사적 의의가 본 연구의 두 번째 논점이다.

맨 먼저 우리의 경험을 의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12년 동안 열일곱 권 발간됐다. 안상수와 발행처인 안그래픽스도 전 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관 상태도 좋지 않다. «보고서»에 관한 정보와 우리의 인식이 일부 호에 한정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편견에서 벗어나고 논의를 구체화하기

1. 1952년생, 그래픽 디자이너, 퍼주터이포그래피학과의 교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1985년 안그래픽스를 설립하고, 같은 해에 안상수체를 발표했다. 1990년 홍익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안그래픽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사내 이사, 디자인 고문으로 일했다. 2012년 홍익대학교에서 퇴임하고 2013년 퍼주터이포그래피학교를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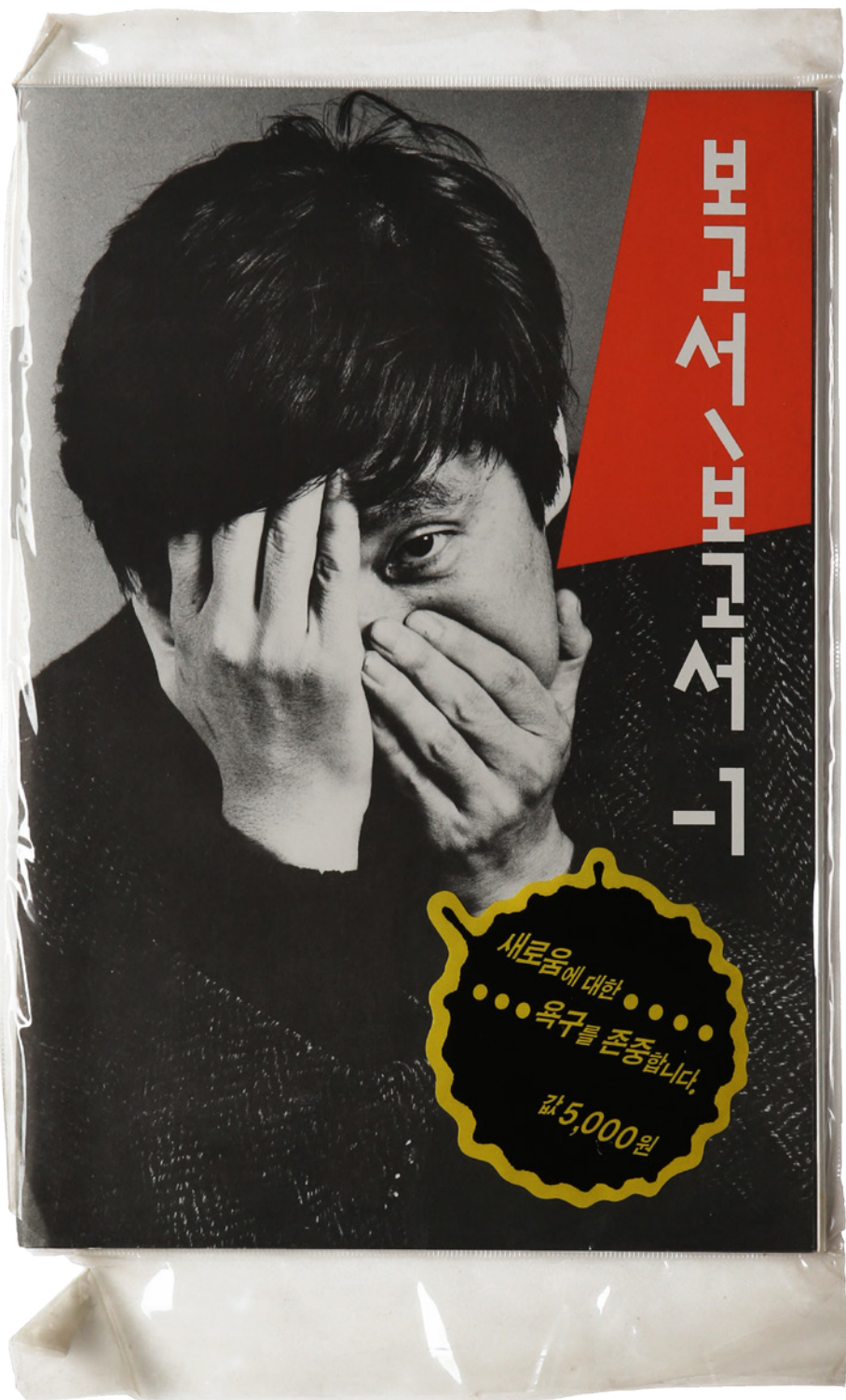
1. Introduction

Why does «bogoseo\bogoseo» (hereafter referred to as «bogoseo») seem unfamiliar? «bogoseo» is known as the pioneering Hangeul typography work in the 1980-1990s, of which Ahn Sangsoo¹ was the editor, art director, publisher. It is described as an achievement in the field of Hangeul typography, and is described with alternating adjectives such ‘avant-garde’ ‘experimental’. However, «bogoseo» is still somewhat unfamiliar even now. This unfamiliarity signifies that the visual qualities of this magazine goes beyond the technical scope of Hangeul typography. A magazine published 20-30 years ago cannot seem unfamiliar in the context of typography in 2017. Starting from these visual qualities this study traces back the background history and element in which Ahn Sangsoo’s unique aesthetics formed.

On the other hand, «bogoseo» is familiar. If you check the magazine’s publication rights, Ahn Sangsoo is the organizer (editor), author, art director, and publisher. His style of taking the lead in creating content resembles the contemporary graphic designers’ multi-tasking activities, from planning, translation, editing, to design, distribution, and critique. In the 1980s, graphic design was perceived as merely one of the steps to make a product and its advertisement, but Ahn had worked in more comprehensive manner. This study’s second discussion point is the background and historical meaning of Ahn’s creative style.

First of all, it is imperative that we doubt our own experience. 17 issues of «bogoseo» have been published for 12 years. Ahn Sangsoo and the publishing

1. Born in 1952, Director of Paju Typography Institute, Chairman of the Board of Seoul Design Foundation. In February 1985, he established Ahn Graphics, and in the same year, he announced his font Ahn Sangsoo. When he was appointed as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in 1990, Ahn resigned from the CEO position and worked as executive director, and design consultant. On 2012, he resigned from Hongik University, and founded Paju Typography Institute in 2013.



[1] 안상수, 《보고서\보고서》 창간호 표지, 1988년 7월 1일.

Ahn Sangsoo, «bogoseo\bogoseo» cover of the first issue, 1 July 1988.

위해 발행일, 차례, 참여자, 판형, 표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정리한다. 이것은 후속 연구의 초석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보고서»에서 선보인 안상수의 미감과 활동 방식이 형성된 개인적, 사회적 배경을 추적한다. 이 두 가지 논점에 관한 연구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대적 해석은 연구자의 몫이지만, 개인적 배경은 안상수의 발언에 기반을 둔다. 2017년 5월 30일 그의 작업실 날개집에서 가졌던 대화²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술 녹취록³, 작품집, 그가 제공한 «보고서» 제작 파일이 주 연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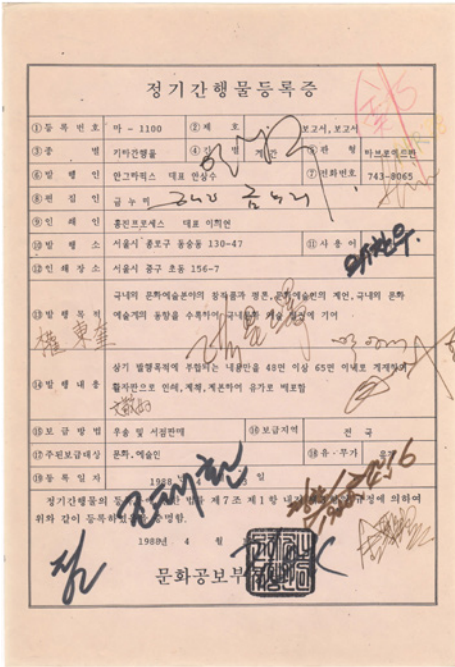
공감각적 대상을 텍스트로 기록하는 데에는 정보의 왜곡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의 정보 왜곡에 관해 연구자와 해석자 사이의 암묵적 합의를 전제한다. 그 합의란 타이포그래피 표현이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표현은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hn.sang-soo’와 ‘Ahn Sangsoo’는 같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서»에 사용된 소문자 전용, 온점의 띄어쓰기 대체 같은 표현을 생략하고 일반적 표기법을 따른다. 단, 제목에 한하여 소문자 전용처럼 글리프를 사용한 표현은 보존한다. 대다수 출판물에서 «보고서» 제목에 사용된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표기하는데, 원 제목 그대로 표기한다. 또한 -1부터 나아가는 호 번호도 그대로 표기한다. 각 호를 가리킬 때는 ‘-1호’처럼 표기하며, 부제목을 함께 적을 때에는 «보고서 -10: 가가가»로 표기한다.

company Ahn Graphics do not currently possess all of these issues, and the ones they have preserved are not in a good state. It is quite possible that information on «bogoseo» and our perception could have been limited to certain issues, or distorted. To be unbiased and to narrow down the discussion, the issues would be documented in detail according to their published date, contents, participants, size, cover, etc. This could also be the cornerstone of future studies. Secondly, I will trace personal, social background in which Ahn’s aesthetics and style presented in «bogoseo» have been formed. These two points share similar approach of study. The understanding of a certain era is the researcher’s realm, but personal stories are based on Ahn Sangsoo’s statements. Main materials for this study are comprised of the conversation² I had with Ahn in his studio Nalgaejip on 30 May 2017, audio recordings of Arts Council Korea³, Ahn’s books, the computer files for creating «bogoseo» which Ahn had provided.

Distortion of information is bound to take place when we document a synaesthetic object into text. This study assumes tacit agreement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reader on the issue of distorted information. Such agreement signifies that typographic expression not entailing any change to the object which the text is indicating, can be omitted. For example, ‘ahn.sang-soo’ and ‘Ahn Sangsoo’ are deemed the same. Therefore, for this study, expressions such as exclusive use of lower-case and substitute of spacing words with periods used in «bogoseo» will be omitted and general rule of orthography will be abided by. Exception being the titles, where expression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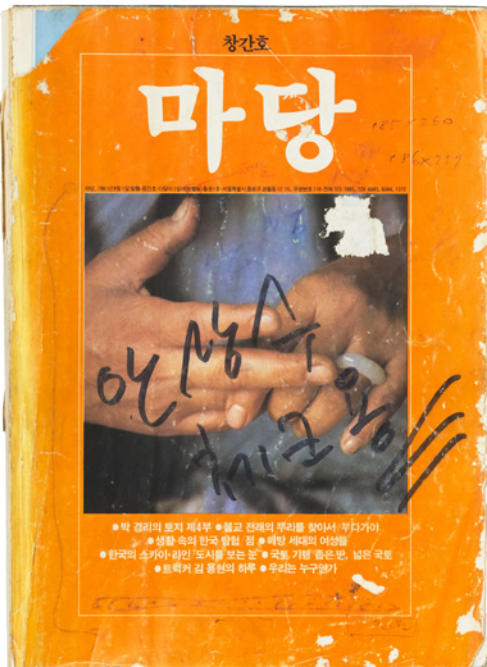
2. 김병조, 안상수, «보고서(보고서)» 전에, 본 연구에서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정보는 이 대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3. 안상수, «2015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52: 안상수».

2. Ahn Sangsoo, Kim Byungjo, “Before the «bogoseo\bogoseo»”,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study which has no reference is based on this conversation.
3. Ahn Sangsoo, «2015 Korean Modern Art History Interview Dictation Series 252: Ahn Sangsoo».



[2] «보고서\보고서»의 경기간행물 등록증, 1988년 4월 13일.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publication for «bogoseo\bogoseo», 13 April 1988.

[3] 안상수, «보고서\보고서» 창간 포스터, 1988년.
Ahn Sangsoo, the poster for launching «bogoseo\bogoseo», 1988.



[4] 안상수, «마당» 창간호 표지와 197쪽에 게재된 김광규의 시 '반달곰에게', 1981년 9월 1일.
Ahn Sangsoo, «Madang» cover of the first issue and the poem on p. 197 by Kim Kwangkyu, titled 'To Black Bear', 1 September 1981.

2. 창간부터 폐간까지

«보고서»는 1988년 4월 1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매체국 신문과에 ‘보고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등록, 같은 해 7월 1일에 창간되어 2000년까지 안그래픽스에서 발행된 잡지이다. 안그래픽스의 설립자이자 홍익대학교 교수였던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와 조각가 금누리⁴가 공동 기획했다. 처음에는 계간지로 기획됐으나 실제로 그렇게 발행된 적은 없는, 사실상 비정기 잡지였다.⁵ [1-3] 간행물 등록증에 기록된 «보고서»의 창간 목적은 국내외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품과 평론, 문화예술인의 제언, 업계 동향을 수록해 한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작품의 주 내용은 대체로 문화계의 전위적 인물과의 인터뷰와 그들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고서 -7: 기호.언어.예술.책»과 «보고서 -8: ㄱㅇ»은 전시 도록으로 만들어졌고, 9호는 하루 동안 만든 안상수와 금누리의 작품으로만 구성됐다.

«보고서»를 창간한 안상수의 동기는 창의적 표현 욕구와 역사적, 국제적 활동에 대한 의식이었다고 한다. 그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잡지 «마당»을 디자인했는데,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영업부와 편집부의 제약이 점차 심해져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다고 한다.[4] 1984년 겨울 «마당»을 떠난 뒤 안그래픽스를 설립한 그는 자신과 회사에 대한 역사적 역할을 의식했고, 1985년 37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도 국제적 눈높이에 맞는 잡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⁶

using glyph such as exclusive use of lower-case will be preserved. Many other publications referring to «bogoseo» mark the backslash used in the title with a slash, but the original title with backslash is noted in this study. Furthermore, the issue numbers beginning from -1 is maintained as well. Every issue is marked as ‘no. -1’, and when the sub-title is also written, it is noted as «bogoseo -10: gagaga».

2. From Launch to Discontinuance

«bogoseo» was registered on 13 April 1988 at the Department of Media, Division of Journal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with the title ‘bogoseo, bogoseo’ and was launched on 1 July 1988. It was published until 2000 by Ahn Graphics. Graphic designer Ahn Sangsoo (Founder of Ahn Graphics and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and sculptor Gum Nuri⁴ were the two masterminds of the project. Initially it was planned as a quarterly, but it was never published as one and was in fact a non-periodical.⁵ [1-3]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publications, the objective of launching «bogoseo» was to contribute in the progress of Korean culture and art by documenting creations and critique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as well as proposals by artists or people working in the art/culture field, and trends in the related industry. The main focus of the magazine was generally on the interviews with pioneering figures in the cultural field and their works. The only exceptions were «bogoseo -7: sign.language.art.book» and «bogoseo -8: ㄱㅇ» which were published as exhibition catalogues, and

4. 1951년생, 조각가, 국민대학교 금속공예과 명예교수.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 학술지 «홍익미술»의 조소과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상수를 만났다. 1977년 «구멍»의 편집장으로 아트 디렉터 안상수와 함께 일했고, 1988년 3월 안상수와 함께 인터넷 카페 ‘일렉트로닉 카페’를 열었다.
5. 안그래픽스, «안그래픽스 30년», 328.
6. 앞의 책, 158-160.

4. Born in 1951, Sculptor, Professor Emeritus at the Department of Metalwork and Jewelry, Kookmin University. When Gum was a student at Hongik University, he worked as editor (sculpture division) for the academic journal «Hongik Art» and he met Ahn Sangsoo. In 1977, Gum was editor-in-chief for «Ggunim» and worked with Ahn who was art director for the project. In 1988, Gum and Ahn opened an Internet cafe ‘Electronic Cafe’ in Seoul.
5. Ahn Graphics, «Ahn Graphics 30 Years», 328.

안상수는 《보고서》를 언제나 새롭게 기획, 디자인했기 때문에 별도의 리뉴얼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형과 콘텐츠, 디자인을 보면 《보고서》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1호부터 -4호까지(1988년 7월부터 1990년 3월), 초기에는 타블로이드 판형(254×374mm)에 중철 제본으로 제작되었고, 인터뷰 기록으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간행물 형식을 갖추고 있다. -5호부터 -9호까지(1990년 8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중기에는 판형이 제각기 다르고, 잡지와 단행본이 혼합된 무크지로 기획되어 안상수와 금누리의 개인 작품 성격이 강하다. 약 2년 동안 휴간한 뒤 발행된 -10호부터 -17호까지(1997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후기에는 인터뷰와 편집, 디자인을 안그래픽스가 아닌 안상수의 개인 연구실 날개집⁷에서 맡는다. -9호와 같은 A4 판형으로 제작되었으나 각 호에 부제목이 있으며, 초기처럼 정식 간행물의 형식을 다시 갖추었고, 크게 바뀐 디자인 양식이 지속된다. 후기 《보고서》는 -15호(1998)까지 연 3회 안정적으로 발행됐고, -16호와 -17호는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발행됐다.[5-9]

《보고서》를 폐간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한다. 안상수와 금누리는 -18호를 마지막 호로 기획했고, 인터뷰까지 진행했으나 일이 잘 진척되지 않았다고 한다. 1년 이상 프로젝트가 정체되는 것을 보고 안상수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10호부터 편집과 디자인을 진행한 날개집의 규모를 고려하면 2000년 ICOGRADA 서울 총회, 2001년 제1회 타이포잔치를 준비하느라 날개집에 역력이 없었을 것이다.

7. 안상수의 개인 연구실. 1990년 중반 안상수가 홍익대학교 홍보부장 보직을 맡으면서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만들었다. 홍익대 재학생들이 연구원으로 일했고, 주로 안상수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대규모 프로젝트는 안그래픽스와 협력하기도 했다.

no. -9 issue was solely composed of works created by Ahn Sangsoo and Gum Nuri on a single day.

Ahn's motivation of launching «bogoseo» was based on his aspiration of creative expression and his recognition of the need to act internationally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From 1981 until 1985, Ahn worked as designer for the magazine «Madang». As the publishing company had to severely limit the sales and editing resources for typographic issues due to financial restraint, Ahn developed a growing longing to design in total freedom.[4] After he left «Madang» in winter 1984, Ahn established Ahn Graphics and became aware of the role the company and himself had to play. Ahn said he had believed there is a need to launch a magazine in Korea recognizable on the international level, especially after having visited the 37th Frankfurt Book Fair in 1985 and experienced the Seoul Olympics in 1988.⁶

Ahn revealed that there were no renewal projects for «bogoseo» since it was always designed in a new form with fresh planning for each issue. However, when we study the format, content, and design, «bogoseo» falls into 3 categories of era. From no. -1 to no. -4 issues (July 1988–March 1990), the early tabloid format (254 × 374 mm) was bound with saddle-stitching, and they were comprised of interviews in the form of a typical publication. From no. -5 to no. -9 issues (August 1990–October 1994) of the middle era, the formats vary, published as mook style, a cross between magazine and book, strongly reflecting the personal styles of Ahn Sangsoo and Gum Nuri. After about 2 years of suspension, no. -10 to no. -17 issues

6. Ibid., 158–160.

3. 과거를 향하는 파괴적 미감

«보고서»는 지금 보아도 낯설다. 안상수로부터 두 세대 뒤에 활동하고 있는 내가 받는 이 자극을 설명하려면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초기 «보고서»를 보면 지면을 크게 자르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1호는 한국 최초로 본문에 경사체를 사용했고, 사진은 대상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듯하다. 표지 안쪽에 사용된 안상수와 금누리의 장기를 촬영한 X-레이 이미지는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2호는 -1호보다 좀 더 치밀하게 조판되었고, 좁은 단과 극적으로 자른 사진을 결합해 뛰어난 리듬감을 선보인다. -3호는 앞선 두 호의 표현을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텍스트 겹치기 같은 극단적 표현을 시도했다. 이렇듯 초기 «보고서»는 내용 구성이나 조직은 기성 잡지의 틀을 가져오면서, 지면을 자르는 조형 감각으로 한국의 경직된 편집 디자인 관습에 대항하는 모습이다.

중기 «보고서»는 안상수와 금누리가 자신들의 스타일과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5호에서 안상수는 처음으로 이상체를 책 전체에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목격할 수 있는 감각은 지면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글자를 지면에 흩뿌리는 것이다. 초기에도 안상수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기하학적인 글자체를 사용하는 감각이지, 글자를 해체하는 감각이 아니었다. -6호는 초기 «보고서»와 -5호의 방법론을 조합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인다. 글자의 요소를 조형 단위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텍스트를

(March 1997–August 2000) were published in the late era. The interviews, editing, and design were done not by Ahn Graphics but by Ahn's private studio Nalgaejip.⁷ They were made into A4 format, same as the no. -9 issue, but each issue had a sub-title and they were in the form of a typical publication again, like in the early era. The big change in design form is maintained. The late era «bogoseo» was published annually for three years on a stable basis until no. -15 (1998), and no. -16 and no. -17 were published respectively in 1999 and 200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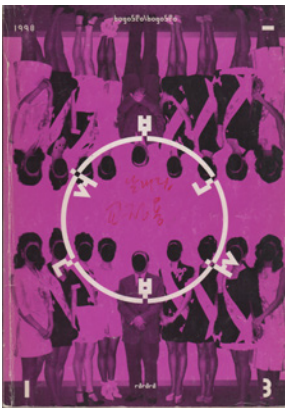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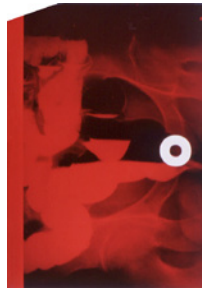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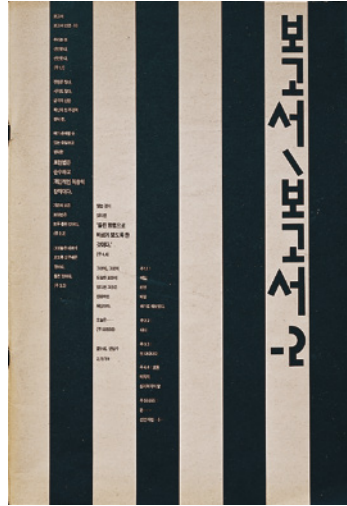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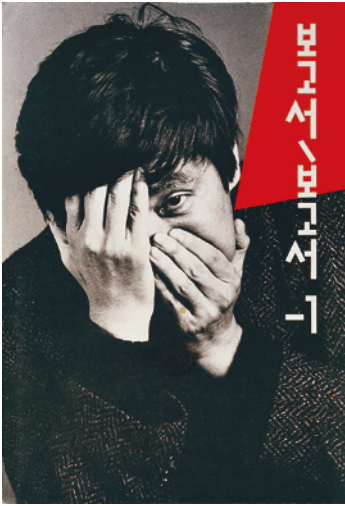
Ahn mentioned that there were no special reasons behind the discontinuance of publishing «bogoseo». Ahn and Gum had planned no. -18 as their final issue and had even done all the interviews but somehow there was no progress. When Ahn realized that the project stayed sluggish for more than a year, he decided that it was time to stop. When considering Nalgaejip's work load of editing and designing since the no. -10 issue, and the simultaneous preparation of the 2000 ICOGRADA General Assembly in Seoul and the 2001 Seoul Typography Biennale(Typojanchi), the studio must have had no energy left.

3. Destructive Aesthetics Plunging into the Past

«bogoseo» looks still quite unfamiliar even now. In order to explain the reaction I have, as a designer two generations post-Ahn's era, there is some other explanation requi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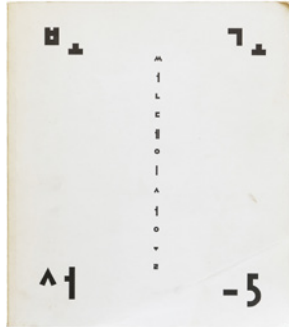
When viewing the early «bogoseo», you can experience the sens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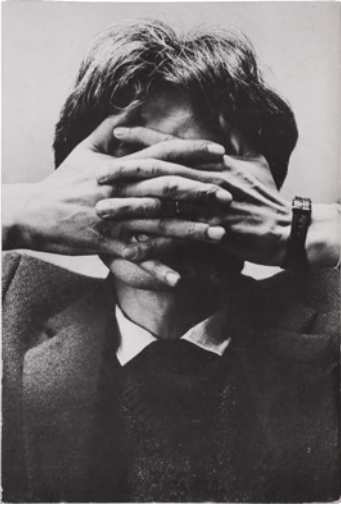
7. Ahn Sangsoo's private studio. It was established in Sangsudong, Mapogu, Seoul, when Ahn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communications in the mid 1990s at Hongik University. Students of Hongik University worked in the studio as researchers, mainly working on Ahn's personal projects, as well as on large projects in cooperation with Ahn 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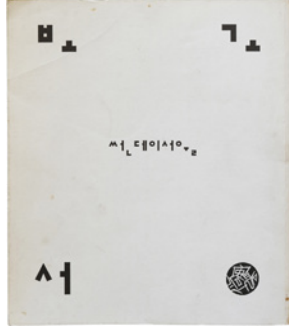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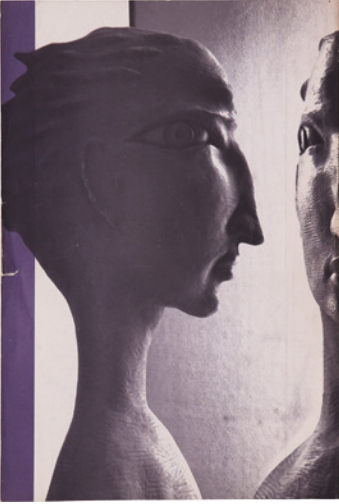
[5] 안상수, «보고서\보고서»의 앞표지, 1988-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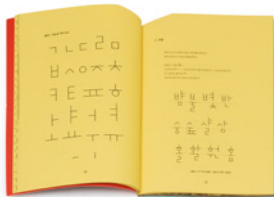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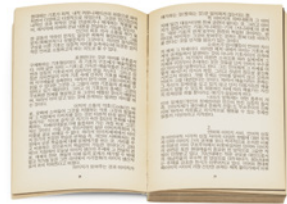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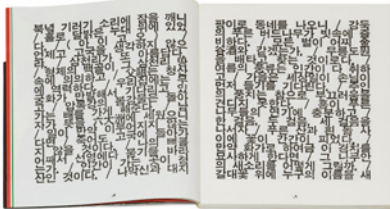
Ahn Sangsoo, the front cover of «bogoseo\bogoseo», 1988-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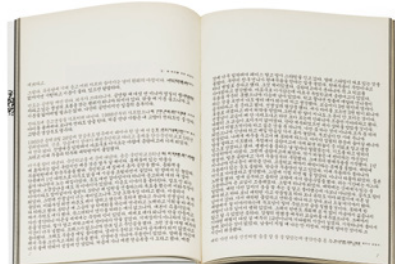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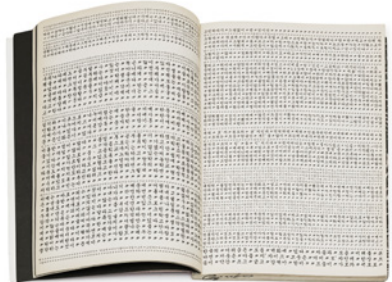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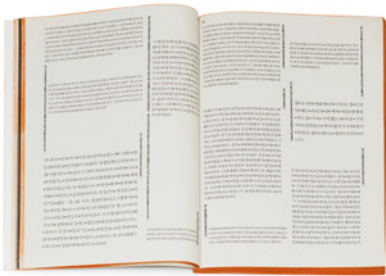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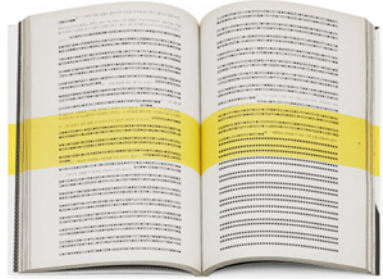


[6] 안상수, 《보고서\보고서》의 뒤표지, 1988-2000년.
Ahn Sangsoo, the back cover of «bogoseo\bogoseo», 1988-2000.





[7] 안상수, «보고서\보고서»의 내지, 1988-2000년.
Ahn Sangsoo, «bogoseo\bogoseo» spread pages, 1988-2000.



호수	부제목	편집과 디자인	발행	판형	쪽수	표지
-1		안그래픽스	1988-07-01	254×374mm	64	안상수.얼굴
-2		안그래픽스	1989-03-15	254×374mm	64	세로줄
-3		안그래픽스	1989-11-01	254×374mm	64	빨간.암호
-4		안그래픽스	1990-03-03	254×374mm	?	얼굴.조각
-5	썬데이서울	안그래픽스	1990-08-01	211×241mm	160	썬데이서울
-6		안그래픽스	1991-07-01	211×241mm	189	인민폐표지
-7	기호.언어.책.예술	안그래픽스	1993-05-11	150×210mm	325	기호.언어.책.예술
-8	ㄱㅇ	안그래픽스	1993-09-23	150×210mm	126	나의.내장
-9	19940609	안그래픽스	1994-10-22	210×297mm	126	1994.06.09.그날.하루.
-10	가가가	날개집	1997-02-01	210×297mm	172	당인리.굴뚝
-11	나나나	날개집	1997	210×297mm	189	해변의.폭탄.고기
-12	다다다	날개집	1997	210×297mm	184	금빛.쌀
-13	라라라	날개집	1998	210×297mm	189	미스코리아
-14	마마마	날개집	1998	210×297mm	165	푸른.얼굴들
-15	바바바	날개집	1998	210×297mm	128	누님의.죽음
-16	사사사	날개집	1999	210×297mm	189	에투와투아
-17	아아아	날개집	2000	210×297mm	180	서울역.태극기

No.	Sub Title	Editing & Design	Published	Size	Pages	Cover
-1		Ahn Graphics	1988-07-01	254×374mm	64	ahn's.face
-2		Ahn Graphics	1989-03-15	254×374mm	64	vertical.stripes
-3		Ahn Graphics	1989-11-01	254×374mm	64	red.code
-4		Ahn Graphics	1990-03-03	254×374mm	?	face.sculpture
-5	sunday.seoul	Ahn Graphics	1990-08-01	211×241mm	160	sunday.seoul
-6		Ahn Graphics	1991-07-01	211×241mm	189	chinese.currency
-7	sign.language.book.art	Ahn Graphics	1993-05-11	150×210mm	325	language.sing.book.art
-8	ㄱㅇ	Ahn Graphics	1993-09-23	150×210mm	126	my.organs
-9	19940609	Ahn Graphics	1994-10-22	210×297mm	126	1994.06.09.a.day.
-10	gagaga	Nalgaejip	1997-02-01	210×297mm	172	danginri.chimney
-11	nanana	Nalgaejip	1997	210×297mm	189	dead.fishes.in.the.seashore
-12	dadada	Nalgaejip	1997	210×297mm	184	golden.rice
-13	rarara	Nalgaejip	1998	210×297mm	189	miss.korea
-14	mamama	Nalgaejip	1998	210×297mm	165	blue.faces
-15	bababa	Nalgaejip	1998	210×297mm	128	sister's.death
-16	sasasa	Nalgaejip	1999	210×297mm	189	etuatua
-17	a.a.a	Nalgaejip	2000	210×297mm	180	seoul.railroad.station

[8] «보고서\보고서»의 호별 정보.

Information on each issue of «bogoseo\bogoseo».

-1	-2	-3	-4
1 머리말 (광고) 이병복	2 다니엘 뷔랭	1 보고서\보고서 선언	1 보고서\보고서 선언
4 안정효	6 ‘서울의 예수’ 정호승	2 에스콰이어	2 좌담
10 (특집) 1950년대	8 카루소	4 복거일	6 정덕영
18 (광고) 이경성	10 이승택	14 주명덕	11 구분창
20 고영훈	16 김중만	18 신중현	16 이건용
24 구분창	20 이재하	22 태극	24 문주
28 백남준	26 멕시코에서 열리는	24 박고석	32 금누리
32 (광고) 김수근	한국현대미술전	28 윤호미	38 성능경
34 천도책	28 김방욱	34 아르망	44 안상수
36 김경렬	34 김경렬	38 無言藝人	48 김대수
40 (광고) 이신우	38 배천범	44 양콜	54 이불
42 조갑제	40 강윤구	46 이인수	58 윤진섭
46 박혜숙	46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	50 검사와 여선생	64 김장섭
52 아트화일	48 ‘버려진 우산’ 조진	56 옛날 그 시절	68 지석철
(광고) 일렉트로닉 카페	54 김장섭	60 역사의 소리	72 이원곤
54 홍현숙	56 작품을 하는 이유	64 알려드립니다	78 알려드립니다
55 박명희	60 지조론 김지훈		
56 이불	64 알려드립니다		
57 주경호, 정해덕			
58 ‘너 참 불쌍타’ 빅토르 위고			
64 알려드립니다			

-1	-2	-3	-4
1 Preface (Ad) Lee byungbok	2 Daniel Buren	1 Manifesto	1 Manifesto
4 Ahn Jeonghyo*	6 ‘Jesus in Seoul,’	2 Exquire	2 Talk
10 [Special] 1950s	Jeong Hoseung	4 Bok Geoil	6 Jung Dukyoung
18 (Ad) Lee Gyeongseong*	8 Caruso	14 Joo Myungduck	11 Koo Bohnchang
20 Koh Yeonghun	10 Lee Seungtaek	18 Shin Junghyeon	16 Lee Kunyong
24 Koo Bohnchang	16 Kim Jungman	22 Taegeuk	24 Moon Joo
28 Paik Namjune	20 Lee Zeha	24 Park Kosuk	32 Gum Nuri
32 (Ad) Kim Swoogeun	26 Korean Contemporary Art	28 Yoon Homi*	38 Sung Neungkyung
34 Cheondochoek	Exhibition in Mexico	34 Arman	44 Ahn Sangsoo
36 Kim Kyongyeol	28 Kim Bangok	38 Mueonyein	48 Kim Daesoo
40 (Ad) Lee Sinu*	34 Kim Kyongyeol	44 Encore	54 Lee Bul
42 Cho Gabje	38 Bae Chunbum	46 Lee Insu*	58 Yun Jinseob
46 Park Hyesook	40 Kang Woongu	50 A Public Prosecutor	64 Kim Jangseop*
52 Art File (Ad) Electronic Cafe	46 ‘Beautiful Country’	and a Teacher	68 Ji Sukchul
54 Hong Hyeonsuk*	Shin Junghyeon	56 The Old Days	72 Lee Wongon*
55 Park Myeonghui*	48 ‘Discarded Umbrellas,’	60 The Sound of History	78 Notice
56 Lee Bul	Cho Jin*	64 Notice	
57 Joo Gyeongho*,	54 Kim Jangseop*		
Jung Haedeok*	56 Reason to work		
58 ‘Les Misérables,’ Victor Hugo	60 ‘Integrity,’ Cho Jihun		
64 Notice	64 Notice		

[9] «보고서\보고서»의 차례.
Contents of «bogoseo\bogoseo».

-5	-6		-7
표1 보고서\보고서 -5	1 보고서 선언문 -6	134 삽입	65 홍수자
표2	4 차례	136 4장	93 한수정
표3	9 글자	142 5장	83 이홍수
표4 보고서 안그래픽스 도장	16 안중근	147 6장	163 이상윤
1 실험주의 선언	17 얼굴	150 7장	257 이동기
4 차례	24 공병우	153 8장	29 안상수
13 썸데이서울	25 얼굴	162 9장	47 서숙진
16 얼굴	36 정찬승	164 10장	135 배준성
22 하등동물 이야기	37 얼굴	165 11장	181 박정제
27 고낙범	48 박재동	166 12장	17 박영택
22 하등동물 이야기	49 얼굴	168 13장	191 박기원
43 명혜경	68 박석우	173 광고	13 박강자
55 안상수	69 얼굴	174 백광현	227 류병학
69 이불	78 이불	176 비무장지대	291 류병학
87 이형주	79 얼굴	178 정미경	209 강홍구
108 최정화	90 스타치올리	180 김형태	
120 윤동천 글	91 얼굴	182 구인광고	
127 광고	101 이규철 사진	184 구희정	
156 알림	107 화암사	186 이상윤	
	117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88 필자주소	
	119 서장	189 알림	
	121 1장	190 안그래픽스	
	125 2장	192 판권	
	129 3장		

-5	-6		-7
Front Cover bogoseo\bogoseo -5	1 Manifesto	164 Chapter 10	65 Hong Sooja
Back of Front Cover	4 Index	165 Chapter 11	93 Han Sujeong*
Rear of Back Cover	9 Letter	166 Chapter 12	83 Lee Hongsu*
Back Cover Ahn Graphics Seal	16 An Junggeun	168 Chapter 13	163 Lee Sangyoon
1 Experimental Manifesto	17 Face	173 Advertisement	257 Lee Dongki
4 Index	24 Kong Byungwoo	174 Baik Gwanghyeon*	29 Ahn Sangsoo
13 Sunday Seoul	25 Face	176 DMZ	47 Seo Sukjin*
16 Face	36 Chung Chan S	178 Jung Mikyung	135 Bae Junseong*
22 The Story of Lower Animals	37 Face	180 Kim Hyungtae	181 Park Jeongje*
27 Kho Nakbeom	48 Park Jaedong	182 Helpwanted Advertisement	17 Park Yeongtaek*
43 Myeong Hyebyeong*	49 Face	184 Gu Huijeong*	191 Park Kiwon
55 Ahn Sangsoo	68 Park Seoku*	186 Lee Sangyoon	13 Park Gangja*
69 Lee Bul	69 Face	188 Addresses of Contributors	227 Ryu Byeonghak*
87 Lee Hyeongjoo	78 Lee Bul	189 Notice	291 Ryu Byeonghak*
108 Choi Jeongwha	79 Face	190 Ahn Graphics	209 Kang Honggu
120 Yoon Dongchun	90 Mauro Staccioli	192 Colophon	
127 Advertisement	91 Face		
	101 Lee Kyuchul		
	107 Hwaamsa		
	117 The Birds Are Also Leaving the World		
	119 Preface		
	121 Chapter 1		
	125 Chapter 2		
	129 Chapter 3		
	134 Insertion		
	136 Chapter 4		
	142 Chapter 5		
	147 Chapter 6		
	150 Chapter 7		
	153 Chapter 8		
	162 Chapter 9		

-8과 -9	-10	-11	-12
차례 없음	6 보고서\보고서 -10 선언	8 보고서\보고서 -11 선언	8 보고서\보고서 -12 선언
	12 강태환	12 이규철	14 김병익
	28 나카무라 마사토	34 조성목	34 김영수
	44 김창훈	50 임동창	56 김민기
	58 고낙범	64 이상남	72 남천
	76 승효상	82 주명덕	90 윤두선
	90 김중만	98 최정화	106 김순기
	114 [시각시] 고태영	114 숨결새별	126 [작업] 에스더 류
	118 왕슈	134 조미희	134 [디지털 유니버스] 최준석
	122 코메디 공화국	148 [시] 신현림	140 [주택 건축 그림] 승효상
	136 [비무장지대] 송정근	150 [작업] 우베뢰슈	152 [말장난] 박지현
	142 까치소리	160 [파라메타스트링] 진은숙	160 [절연하는 논리] 이시우
	160 루이스 칸	168 [나비, 돌, 보석] 구성연	
	162 이성표	174 [후후] 임정혜	
	164 이움		
	166 김진진		
	168 금누리		
	170 [말굽돌이] 김청구		

-8 and -9	-10	-11	-12
No Contents	6 Manifesto	8 nanana Manifesto	8 dadada Manifesto
	12 Kang Taehwan	12 Lee Kyuchul	14 Kim Byongik
	28 Nakamura Masato	34 Cho Sungmook	34 Kim Youngsoo
	44 Kim Changhoon	50 Lim Dongchang	56 Kim Mingi
	58 Kho Nakbeom	64 Lee Sangnam	72 Namcheon
	76 Seung Hsang	82 Joo Myungduck	90 Yoon Doosun
	90 Kim Jungman	98 Choi Jeonghwa	106 Kim Soungui
	114 [Visual Poem] Koh Taeyoung	114 Sumkyul Saeboal	126 [Works] Esther Liu
	118 Wang Xu	134 Mihee Nathalie Lemoine	134 [Digital Universe]
	122 Republic of Comedy	148 [Poem] Shin Hyunrim	Choi Junseok
	136 [DMZ] Song Jungkeun	150 [Graphic Works] Uwe Loesch	140 [Architectural Drawings]
	142 The Twitter of Magpies	160 [Parametastring] Chin Unsuk	Seung Hsang
	160 Louis I Khan	168 [Butterfly, Stone, Jewel]	152 [Verbal Pun] Park Jihyun
	162 Lee Sungpyo	Koo Seongyeon	160 [The Logic of Severing
	164 Rhee Yoom	174 [Hoohoo] Leem Jeonghye	Relations] Lee Siwoo
	166 Kim Jinjin		
	168 Gum Nuri		
	170 [Uturn] Kim Cheonggoo		

-13

6 보고서\보고서 -13 선언
 12 여태명
 30 김나영, 그레고리 마스
 58 황병기
 68 조혜정
 84 황신혜밴드
 106 류시화
 122 윤동천
 140 [작업] 모마예즈
 150 [작업] 민병걸
 158 [조각] 이종빈
 166 [사진] 김주현

-14

2 보고서\보고서 -14 선언
 6 이상현
 24 홍성도
 40 안규철
 56 홍명섭
 72 김용익
 88 사인코 남치락
 110 어어부 프로젝트 사운드
 130 헬무트 슈미트
 138 백종열
 146 김홍석

-15

10 강동석
 11 강수미
 12 강운구
 13 강홍구
 14 고낙범
 15 고태영
 16 고흥
 17 구분창
 18 구성연
 19 금누리
 20 김경렬
 21 김기수
 22 김기철
 23 김길남
 24 김나영
 25 김대수
 26 김동섭
 27 김두섭
 28 김미영
 29 김미경
 30 김상도
 31 김상만
 32 김상옥
 33 김성남
 34 김수진

35 김순기
 36 김신혁
 37 김영수
 38 김영주
 39 김용익
 40 김유선
 41 김은영
 42 김은조
 43 김주현
 44 김현필
 45 김형태
 46 김홍석
 47 나카무라 마사토
 48 류시화
 49 류에스터
 50 류지혜
 51 그레고리 마스
 52 명선식
 53 모르테자 모마예즈
 54 문주
 55 민현식
 56 박기원
 57 박기태
 58 박민수
 59 박장희

-13

6 rarara Manifesto
 12 Yeo Taemyung
 30 Kim Nayoung,
 Gregory Maass
 58 Hwang Byungki
 68 Cho Haejoang
 84 Pretty Hwang Band
 106 Ryu Shiva
 122 Yoon Dongchun
 140 [Works] Morteza Momayez
 150 [Works] Min Byungeol
 158 [Sculpture] Lee Jongbin
 166 [Photography] Kim Joohyun

-14

2 mamama Manifesto
 6 Lee Sanghyun
 24 Hong Sungdo
 40 Ahn Kyuchul
 56 Hong Myungseop
 72 Kim Yongik
 88 Sainko Namtchylak
 110 Uhuhboo Project Sound
 130 Helmut Schmid
 138 Jong.Y.Baik
 146 Sokhongim

-15

10 Kang Dongsug
 11 Kang Sumi
 12 Kang Woongu
 13 Kang Honggu
 14 Koh Nakbeom
 15 Koh Taeyoung
 16 Ko Hong
 17 Koo Bohnchang
 18 Koo Seongyeon
 19 Gum Nuri
 20 Kim Kyongyeol
 21 Kim Kisoo
 22 Kim Kichul
 23 Kim Kilnam
 24 Kim Nayoung
 25 Kim Daesoo
 26 Kim Dongsup
 27 Kim Doosup
 28 Kim Meeyoung
 29 Kim Mijung
 30 Kim Sangdo
 31 Kim Ssangman
 32 Kim Sanguck
 33 Kim Sungnam
 34 Kim Soojin
 35 Kim Soungui
 36 Kim Sinhyouk
 37 Kim Youngsoo
 38 Kim Youngjoo
 39 Kim Yongik
 40 Kim Yousun
 41 Kim Eunyoung

42 Kim Eunjo
 43 Kim Joohyun
 44 Kim Hyunpil
 45 Kim Hyungtae
 46 Gim Hongsok
 47 Nakamura Masato
 48 Ryu Shiva
 49 Liu Esther
 50 Ryu Chihye
 51 Gregory Maass
 52 Myeogn Sunsik
 53 Morteza Momayez
 54 Moon Joo
 55 Min Hyunsik
 56 Park Kiwon
 57 Park Kitae
 58 Park Minsoo
 59 Park Janghee
 60 Park Jaehong
 61 Park Taekkeun
 62 Park Hangryul
 63 Bae Beinu
 64 Bae Chunbum
 65 Sung Neungkyung
 66 Song Soonam
 67 SumkyulSaeboal
 68 Seung Hsang
 69 Shin Myeungeun
 70 Shin Hyun Rim
 71 Shin Hyejeong
 72 Shim Kwanghyun
 73 Shim Wansub

60 박재홍	84 유병학	108 임연숙	-16
61 박택근	85 유진상	109 장영규	4 보고서\보고서 -16 선언
62 박항률	86 유한집	110 장영철	8 김영하
63 배병우	87 윤인식	111 저자	28 조영제
64 배천범	88 이건용	112 전숙희	48 이건용
65 성능경	89 이규정	113 정덕영	68 홍성민
66 송수남	90 이동기	114 정미경	88 송번수
67 숨결새별	91 이문재	115 정서영	108 배용균
68 승효상	92 이병복	116 정영웅	130 주빙
69 신명은	93 이상윤	117 조미희	142 볼프강 바인가르트
70 신현림	94 이상은	118 주명덕	154 이용제
71 신혜정	95 이성표	119 지식철	162 이동기
72 심광현	96 이세영	120 천상현	172 김윤
73 심완섭	97 이윤주	121 최정화	-17
74 안규철	98 이음	122 최준석	4 보고서\보고서 -17 선언
75 안병학	99 이은재	123 허진	6 민현식
76 안삼열	100 이일훈	124 현관욱	28 마광수
77 안상수	101 이재구	125 홍성도	50 안은미
78 양성욱	102 이재용	126 홍성택	68 트위스트킴
79 양주혜	103 이재철	127 홍수자	86 원일
80 양진하	104 이정진	128 홍신자	104 김창열
81 엄정호	105 이종빈		128 펙카 쉬리아라
82 여태명	106 이준영		138 로만 칼라루스
83 왕슈	107 임동창		148 김동욱
			166 김수정

74 Ahn Kyuchul	106 Lee junyeong	-16	-17
75 Ahn Byunghak	107 Lim Dongchang	4 sasasa Manifesto	4 a.a.a Manifesto
76 Ahn Samyeol	108 Lim Yeonsuk	8 Kim Youngha	6 Min Hyunsik
77 Ahn Sangsoo	109 Jang younggyu	28 Cho Youngjae	28 Ma Kwangsoo
78 Yang Seonguk	110 Jang Youngchol	48 Lee Geonyong	50 Ahn Eun Me
79 Yang Juhae	111 Juja	68 Hong Sungmin	68 Twist Kim
80 Yang Jinha	112 Chun Suki	88 Song Burnsoo	86 Won Il
81 Ohm Jungho	113 Jung Dukyoung	108 Bae Yongkyun	104 Kim Tschangyeul
82 Yeo Taemyung	114 Jung Mikyung	130 Xu Bing	128 Pekka Syrjälä
83 Wang Xu	115 Chung Seoyoung	142 Wolfgang Weingart	138 Roman Kalarus
84 Yoo Byunghak	116 Cheong Yeongwoong	154 Lee Yongje	148 Kim Dongwook
85 Yoo Jinsang	117 Cho Mihee	162 Lee Donggi	166 Kim Soojeong
86 Yoo Hanjim	118 Joo Myungduck	172 Kim Yoon	
87 Yoon Insik	119 Ji Sukchul		
88 Lee Kunyong	120 Choun Sanghyun		
89 Lee Kyujeong	121 Choi Jeongwha		
90 Lee Dongki	122 Choi Junseok		
91 Lee Moonjae	123 Huh Jin		
92 Lee byunghok	124 Hyun Kwanwook		
93 Lee Sangyoon	125 Hong Sungdo		
94 Lee Sangeun	126 Hong Sungtaek		
95 Lee Sungpyo	127 Hong Sooja		
96 Lee Seyoung	128 Hong Sincha		
97 Lee Yoonjoo			
98 I um			
99 Lee Eunjae			
100 E Ilhoon			
101 Lee Jaegoo			
102 Rhee Jaeyong			
103 Lee Jay			
104 Lee Jungjin			
105 Lee Jongbin			

시점 가까이 가져오거나, 멀리 밀어내는 깊이의 감각도 엇보인다. «보고서 -7: 기호.언어.책.예술»은 같은 제목의 전시 도록으로 제작되었는데, 극단적으로 좁은 글줄 사이와 본문에 사용된 경사체 등 일부 장치만 남기고 이전 호에서 사용한 강한 디자인 양식을 대부분 걷어냈다. 이것은 안상수의 문자도 작품을 하나의 원고로 넣기 위해 주변을 중화시킨 전략으로 보인다. 안상수와 금누리의 전시 도록으로 제작된 «보고서 -8: 10»에서 안상수는 자신의 디자인 논리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호는 중기 «보고서»의 해설서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루 동안 안상수와 금누리가 만든 작품으로 구성된 «보고서 -9: 1994 06 09»는 인쇄된 텍스트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디자인보다 예술적 퍼포먼스로서의 출판에 주목한 것 같다.

후기 «보고서»는 2년의 휴간 뒤에 발행됐는데, 내용이나 조직이 초기처럼 다시 정식 간행물에 가까워졌다. 디자인은 훨씬 전위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태도는 마치 한글 조판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처럼 도전적이다. «보고서 -10: 가가가»는 문장부호를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내용에 따라 글자 크기나 기준선 등을 바꾸는데, 그 전체 감각은 중기처럼 글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덩어리, 텍스트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매우 평면적이며, 지면을 분할하지 않고 지면 속에서 구조체로서 텍스트를 다루고 있으며, 이 감각은 마지막 호까지 유지된다. «보고서 -11: 나나나»와 «보고서 -12: 다다다»는 조판이 조금 더 정교하지만, 소형 감각은 -10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고서 -13: 라라라»는 -5호처럼 전체 텍스트를 하나의 깊이, 다시 말해 동일한 위계에서 다룬다. 결과적으로 텍스트가

dividing space. no. -1 issue used oblique in the body tex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photos seemed to reveal the object as is, not in a glorified manner. The inner pages of the cover portrayed X-ray images of Ahn's and Gum's body to convey the message that humans are animals, too. no. -2 was more meticulously typeset than no. -1, and narrow columns and dramatically cut photos were well combined to create an excellent rhythm. no. -3 became bolder than the two former issues' expression, and even attempted overlapping texts, a radical expression. As such, early «bogoseo» inherited the existing frame of previous magazines in the composition of content or structure, but clearly defied the rigid customary editing design habits in Korea with the formative sense of dividing the paper's space.

Mid-era «bogoseo» seemed to have focused on establishing the personal style and methodology of Ahn Sangsoo and Gum Nuri. In no. -5, it was the first time that Ahn used his Leesang font for the entire pages, and we can witness his sense of scattering the fragmented letters on the page, not of dividing the page. Ahn had used this font in the early period as well, but it was about using the geometrical font, not about deconstructing the letters. no. -6 appears to be in a transition period since it combines the early «bogoseo» and the methodology of no. -5 issue. Ahn began using the element of letters as formative unit in an active manner, as in close-up on the text to bring it up close to the viewpoint, or pushing it away to give depth. «bogoseo -7: sign. language.book.art» was made as an eponymous exhibition catalogue, without the strong design features of the previous issue, leaving only certain device

만드는 회색의 평면이 강조되었다. -10부터 -12호까지가 텍스트를 잘게 해체하는 감각이었다면, 이 호는 텍스트를 크게 자르는 감각이다. «보고서 -14: 마마마»와 «보고서 -15: 바바바»는 기본적으로 후기 «보고서»의 디자인 기초를 유지하면서, 초기에 나타난 지면을 분할하는 감각을 다시 선보인다. «보고서 -16: 사사사»는 3차원적 표현을 시도했는데, 그 단위는 역시 평면적 텍스트이다. 마지막 호, «보고서 -17: 아아아»에서 안상수는 정제된 디자인을 선보인다. 이전 호에 비해 문장부호의 장식적 사용과 내용에 따른 타이포그래피적 변주 모두 자제했다.

«보고서»를 관통하는 미감은 기계적, 파괴적, 그리고 평면적이다. 파괴의 대상이 글자, 지면, 텍스트로 바뀔 뿐 날카로운 해체의 감각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포스터 <강태환 자유 음악 콘서트>(1995), <죽산국제예술제>(1995-2008), 문학 잡지 <자음과모음>(2008-2016) 등은 이 맥락에 있는 작품이다. 또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는 시간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그가 사용한 사진은 과거를 현재로 당기는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고정된 과거를 더 과거로 밀어내는 듯하다. «보고서»에 실린 문자도는 현대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재에서 과거를 가리키고 있다. 이 시간 감각은 «젊은 예술가들의 여행»(1998), <홀려라>(2017)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해체적 미감과 회귀하는 시간 감각이 결합된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동적이며, 이 특징은 안상수의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보고서»를 만들 당시 안상수는 앤디 워홀이 1969년 창간한 잡지 «인터뷰»를

such as the radically narrow line spacing and oblique in the body text. This seems to have been a strategy to neutralize the surroundings to include Ahn's 'Munjado (letter works)' as one of the manuscripts. In «bogoseo -8: ㄱㅇ» which was made as Ahn and Gum's exhibition catalogue, Ahn accounts for his design logic. Therefore, this particular issue appears to be a handbook for mid-era «bogoseo». «bogoseo -9: 1994 06 09» which consisted of works created by Ahn Sangsoo and Gum Nuri on a single day, brought the materialized text back to 2dimension. In my opinion, this issue concentrated on publication as artistic performance, rather than design.

Late-era «bogoseo» was issued after 2 years of suspension, with content and structure back to regular publications like in the early days. The design had become all the more avant-garde, with a rather provocative attitude as if to examine all the possibilities of Hangeul typesetting. «bogoseo -10: gagaga» used punctuation marks in an unconventional manner, and transformed the font size or base line according to content. The overall sense was not about destroying letters like in the mid-era, but about destroying the mass of letters and text. It is also very flat, there is no division of space, and text is solidified as structure on the page. This sense of style is maintained until the very last issue. «bogoseo -11: nanana» and «bogoseo -12: dadada» have been slightly more elaborate in typesetting, but the formative sense is not very different from no. -10 issue. «bogoseo -13: rarara» deals the entire texts on the same level, like in the no. -5 issue. The flat grey surface made by the text is naturally emphasized. Whereas no. -10 to no. -12 issues displayed the sense

즐거 보았고 다다, 미래파, 플렉서스의 작가들을 좋아했지만, 직접적으로 참고한 작품이나 작가는 없었다고 한다.⁸ 대신 그가 자신의 미적 기반으로 밝힌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컴퓨터의 빠른 도입이다. 수작업을 선호하지 않았던 그는 1980년대 중반 8비트 컴퓨터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안상수체를 캐드 2.1버전으로 만들었다. 또한 안그래픽스에서 한국 최초로 DTP 출판을 시도했으며, 전자카페를 열고, PC통신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렇게 일찍 컴퓨터를 사용한 덕분에 수작업을 주로 했던 동료들과는 다른 조형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컴퓨터의 시끄러운 기계음, 저해상도 디스플레이의 픽셀화된 이미지, 작은 색공간, 인간의 육체적 흔적이 사라진 레이저 출력 등이 시각적으로 번역된 모습은 픽셀화되고 평면적이며, 차갑고,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중심이 되는 안상수체의 조형도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 글자를 손이 아니라 캐드로 그리는 과정에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벡터의 조형 감각을 체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자의 과거에 대한 탐구이다. 그의 작품에는 부적을 떠올리게 하는 주술적인 면이 있다. 이것은 문자의 과거에 대한 그의 오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글자의 형태 층위 아래에 잠재된 주술성을 탐구해왔고, 부적처럼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서 어떤 힘을 느끼길 바랐다. 다시 말해 그는 글자의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글자의 형태가 갖고 있는 심리적 가능성을 탐구해왔으며, 여기에서 체득된 미적 감각이 그의 작품 전반에 반영된 것이다. 다만 그의 작품이나 논문,

of deconstructing the text in thin strips, showing us how to slash the text in big scale. «bogoseo -14: mamama» and «bogoseo -15: bababa» basically maintain the late-era design concept of «bogoseo», while summoning the early-era sense of dividing space again. «bogoseo -16: sasasa» attempted a 3-dimensional expression of which the unit was flat text. Finally, the last issue «bogoseo -17: a.a.a» presented Ahn's refined design. Compared to previous issues, decorative use of punctuation marks and variation in typography according to content were all subdued.

The transpiercing aesthetics of all issues of «bogoseo» is mechanical, destructive, and flat. The object of destruction varies from letters, page, to text, but the acute sense of deconstruction is consistently displayed. «Kang Taehwan Free Music Concert» (1995), «Juksan International Art Festival» (1995–2008), cultural magazine «Jaeum and Moeum» (2008–2016), etc. are works in the same vein. Furthermore, in «bogoseo» we can experience the sense of time, going back in the past. The photos Ahn had used were not the usual ones which the past into the present. They seemed to be of the fixed past, being pushed further into the past. The letters shown in «bogoseo» has a modern form, but they indicate the past from the present. This kind of sense in time is well portrayed in «A Journey of Young Artists» (1998), «hollyeora (be immersed)» (2017). With deconstructive aesthetics combined with recurrent sense of time, «bogoseo» is generally dynamic, and this characteristic is prevalent in all of Ahn Sangsoo's works.

During the time Ahn had created «bogoseo», he enjoyed reading the

기고문 등을 보았을 때 이것은 중기와 후기 «보고서»에 해당되며, 초기에는 컴퓨터의 영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적 배경을 포괄하는 것은 안상수의 토착성이다. 그는 자신이 언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의식하고, 주변을 관찰하며, 그 장소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흡수해왔다. 그는 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추적하고, 그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그가 자신의 미적 배경으로 밝힌 컴퓨터, 문자의 과거도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보고서»에서 목격할 수 있는 어둠과 불안함, 그리고 저항적 분위기도 1인당 GDP 6,000달러를 향해 달리던, 동시에 가장 치열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1980년대 한국 사회, 그리고 온 시민이 힘을 쏟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비주류 예술가들의 불안정한 삶, 21세기를 향한 희망과 불안함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종합적 활동

«보고서»의 판권을 보면 안상수는 기획자, 저자, 아트 디렉터, 발행인이었다. 다른 스태프도 그의 직원이거나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제작 과정을 총괄했다.[10] 콘텐츠 생산을 주도하는 그의 종합적 활동은 안그래픽스에서 출판된 «서울 시티 가이드»(1986), «한국전통문양집» 1-12권(1986-1996), «나나 프로젝트»(2004-2012), «라라 프로젝트»(2006), «궁궐의 안내판이 바뀐 사연»(2008)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는 그러한 방법론을

magazine «Interview», founded by Andy Warhol in 1969, and he was fond of Dadaists and Fluxus artists. However, Ahn mentioned that there were no work or artist that he was inspired from directly.⁸ Instead, he revealed that his aesthetic foundation lies o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the early adaptation to computer technology. As Ahn had not preferred manual work, he had begun using the 8-bit computer in the mid 1980s. He created the Ahnsangsoo font as CAD 2.1 version. Additionally, Ahn Graphics was the first in Korea to attempt DTP publication. Ahn also opened an Internet café and was active in PC communication. As he was an early adopter of computers, he could develop a somewhat different formative sense compared with his colleagues who still worked mostly manually. The noisy machine sound of the computer, pixelated image of low resolution display, small color space, laser print where human corporal trace has disappeared, etc. were visually translated into pixelated, flat, cold images with a hint of hope and anxiety mixed together. The Ahnsangsoo font which is the main font of «bogoseo» can be understood in this formative context. In the process of drawing letters with CAD, not hands, Ahn would have obtained the formative sense of vector which humans cannot imitate.

The second point is the study on the past of letters. Ahn's works have a certain shamanistic aspect, conjuring up some kind of talisman. This is due to his long term study on the past of letters. Ahn has been exploring the magical power latent under the different levels of letter forms. He wishes people could feel a certain power through his work like a talisman. That is, he had

-1
 기획: 금누리 + 안상수
 편집: 정영림, 이윤희, 안정인
 디자인: 홍성택, 박영미, 이재구
 사진: 최영돈, 유재학
 편집인: 금누리
 발행인: 안상수
 발행처: 안 그라픽스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0-47
 1988년 7월 1일 펴냄

인쇄: 영 인쇄
 인쇄인: 이세용
 등록일: 19880413
 등록 번호: 마-1100
 값: 5,000원

-2
 편집인: 금누리
 편집장: 김영주
 편집: 안정인, 김진희, 김은조
 선임 디자이너: 박영미
 디자인: 권동규, 이세영
 사진: 최은성, 유재학
 기획 부장: 김옥철
 광고, 영업: 이용승

회계: 문경여
 1989년 3월 15일 펴냄
 인쇄: 영인쇄
 등록일: 19880413
 등록 번호: 마-1100
 발행처: 안그라픽스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0-47
 발행인: 안상수
 값: 5,000원

-3
 편집인: 금누리
 편집장: 김영주
 편집: 안정인, 김진희,
 김명규, 김은조
 수석 디자이너: 박영미
 디자인: 이세영, 김창욱,
 유경선, 이은주
 사진: 최은성
 기획 부장: 김옥철
 광고, 영업: 이용승
 1989년 11월 1일 펴냄
 인쇄: 새글
 등록일: 1988년 4월 13일
 등록 번호: 마-1100

발행처: 안그라픽스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0-47
 발행인: 안상수
 값: 5,000원

-4
 책 없음

-5
 편집인: 금누리
 편집장: 김영주
 수석 디자이너: 신경영
 디자인: 이현주
 컴퓨터 디자이너: 김강정
 사진: 현관욱
 기획: 김옥철
 광고, 영업: 이용승
 1990년 8월 10일 펴냄
 인쇄: 영창프로세스
 등록일: 1988년 4월 13일
 등록 번호: 마-1100

발행처: 안그라픽스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4
 값: 5,000원

-6
 발행인: 안상수
 편집인: 금누리
 편집장: 김영주
 편집: 안정인, 김명규, 황유정
 디자인: 박영미, 임영한, 신경영,
 이세영, 김창욱, 김은정,
 이윤주, 문혜원

기획이사: 김옥철
 영업차장: 이희선
 영업: 김한석, 김건웅
 광고: 이용승, 김은영
 1991년 7월 1일 펴냄
 등록일: 1988년 4월 13일
 등록 번호: 마-1100
 인쇄: 한영문화사
 발행처: 안그라픽스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4
 값: 5,000원

-1
 Directors: Gum Nuri +
 Ahn Sangsoo
 Editors: Jeong Yeongrim*,
 Lee Yunhui*, Ahn Jeongin*
 Designers: Hong Sungtaek,
 Park Yeongmi*, Lee Jaegoo
 Photographers: Choi Yeongdon*,
 Yoo Jaehak*
 Executive Editor: Gum Nuri
 Publisher: Ahn Sangsoo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130-47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510
 Published in 1 July 1988
 Printing: Young Printing
 Printer: Lee Seyong*
 Registration Date: 13 April 1988
 Registration Number: Ma-1100
 Price: 5,000won

Photographer: Choi Onseong*,
 Yoo Jaehak*
 Coordinator: Kim Okchyl
 Advertising Sales
 Department: Lee Yongseong
 Accounting Department:
 Moon Gyeongyeo*
 Published in 15 March 15, 1989
 Printing: Young Printing
 Registration Date: 13 April 1988
 Registration Number: Ma-1100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130-47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510
 Publisher: Ahn Sangsoo
 Price: 5,000 won

Photographer: Choi Onseong*
 Coordinator: Kim Okchyl
 Advertising Sales Department:
 Lee Yongseong
 Published in 1 November 1989
 Printing: Saegul*
 Registration Date: 13 April 1988
 Registration Number: Ma-1100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130-47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510
 Publisher: Ahn Sangsoo
 Price: 5,000 won

Advertising Sales: Lee Yongseong
 Published in 10 August 1990
 Printing: Youngchang Process
 Registration Date: 13 April 1988
 Registration Number: Ma-1100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1-34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510
 Price: 5,000 won

-6
 Publisher: Ahn Sangsoo
 Executive Editors: Gum Nuri
 Editor in Chief: Kim Youngjoo
 Editing: Ahn Jeongin*,
 Kim Myunggyu*,
 Hwang Yujeong*
 Designers: Park Yeongmi*,
 Im Yeonghan*,
 Shin Gyeongyeong*,
 Lee Seyoung, Kim Changuk*,
 Kim Eunjeong*, Lee Yoonjoo,
 Moon Hyewon*
 Coordinator: Kim Okchul
 Sales Manager: Lee Heesun
 Sales: Kim Hanseok*,
 Kim Geonung*
 Advertising Sales Dept.:
 Lee Yongseong

-3
 Executive Editors: Gum Nuri
 Editor in Chief: Kim Youngjoo
 Editors: Ahn Jeongin*,
 Kim Jinhui*,
 Kim Myunggyu*,
 Kim Eunjo
 Senior Designer: Park Yeongmi*
 Designers: Lee Seyoung,
 Kim Changuk*,
 Yoo Gyeongseon*,
 Lee Eunju*

-4
 NA

-5
 Executive Editors: Gum Nuri
 Editor in Chief: Kim Youngjoo
 Editing: Ahn Jeongin*,
 Kim Myunggyu*
 Senior Designer:
 Shin Gyeongyeong*
 Designer: Lee Hyeonju*
 Computer Designer:
 Kim Gangjeong*
 Photographer: Hyun Kwanwook
 Coordinator: Kim Okchyl

-2
 Executive Editor: Gum Nuri
 Editor in Chief: Kim Youngjoo
 Editors: Ahn Jeongin*,
 Kim Jinhui*, Kim Eunjo
 Senior Designer: Park Yeongmi*
 Designers: Kwon Donggyu*,
 Lee Seyoung

[10] «보고서\보고서»의 판권.
 Reference of publication rights of «bogoseo\bogoseo».

-7

지은이: 강홍구, 류병학, 박기원,
박영택, 박정제, 배준성,
서숙진, 안상수, 이동기,
이상윤, 한수정, 홍수자
기획: 박영택
책 만든이: 안상수
디자인 도움: 민병걸, 문지숙
발행인: 김옥철
발행: 안그라픽스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4
등록 번호: 2-236
인쇄: 영창프로세스
1993년 5월 1일 찍음
1993년 5월 11일 펴냄
값: 10,000원
이 책은 1993년 5월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기호.언어.책.예술'전의
전시 도록으로
출판된 것입니다.

-8

차례 없음

Published in 1 July 1991
Registration Date: 13 April 1988
Registration Number: Ma-1100
Printing: Hanyoungmunhwa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1-34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510
Price: 5,000 won

-7

Authors: Kang Honggou,
Ryu Byeonghak*,
Park Giwon*,
Bahk Youngtaik,
Park Jeongje*, Bae Joonsung,
Seo Sukjin*, Ahn Sangsoo,
Lee Dongki, Lee Sangyoon,
Han Sujeong*, Hong Sooja
Coordinator: Bahk Youngtaik
Designer: Ahn Sangsoo
Contributing Designers:
Min Byunggeol, Moon Jisook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1-34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510
Registration Number: 2-236
Printing: Youngchang Process

-9

지은이: 안상수, 금누리
작업: 임정혜, 김태현
번역: 임옥
발행인: 김옥철
발행: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등록 번호: 2-236
인쇄: 한영문화사
1994년 10월 15일 찍음
1994년 10월 22일 펴냄
ISBN 89-7059-026-9

-10

편집인: 금누리, 안상수
편집위원: 이불, 윤인식,
유진상, 유한짐
편집장: 문지숙
편집: 안영이
아트 디렉터: 안상수
포토 디렉터: 배병우
디자이너: 류지혜, 이은재
디자인 도움: 고태영, 김상만,
김신혁, 임정혜, 장영철, 최준석
사진 도움: 김순신, 김계경,

-8

No Colophon

-9

Authors: Ahn Sangsoo, Gum Nuri
Designers: Leem Jeonghye,
Kim Taeheon*
Translation: Lim Uk*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Registration Number: 2-236
Printing: Hanyoungmunhwa
Printed in October 15, 1994
Published in October 22, 1994
ISBN 89-7059-026-9

윤형문, 이상윤, 이재용,
이재철, 홍일, 고이치 하야카와,
겐파치, 후지모토,
모토이 오쿠무라,
이치로 오타니, 속 스튜디오

인터뷰 도움: 김두섭, 김형태,
신명은, 김유선, 민현식,
박재천, 이일훈, 이준영
글 도움: 김청구, 정혜정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광고팀: 이용승
편집실: 날개집

120-600 서울
서대문우체국 사서함 41
인쇄: 한영문화사
제본: 영신사
종이: 페이퍼 플라자
부정기 잡지:
1997년 2월 1일 펴냄
값: 1997년 10,000원 /
1998년 15,000원 /
1999년 20,000원
ISBN 89-7059-059-5

-10

Executive Editors: Gum Nuri,
Ahn Sangsoo
Contributing Editors: Lee Bul,
Yoon Insik, Yoo Jinsang,
Yoo Hanjim
Editor in Chief: Moon Jisook
Editor: Ahn Youngyi
Art Director: Ahn Sangsoo
Photo Director: Bae Bienu
Designers: Ry Chihye,
Lee Eunjae
Contributing Designers:
Koh Taeyoung,
Kym Ssangman,
Kim Sinhyouk,
Leem Jeonghye,
Jang Youngchul,
Choi Junseok
Contributing Photographers:
Kim Soonshin,
Kim Jaekyung,
Yoon Hungmoon,
Lee Sangyoon,
Rhee Jaeyoung,
Lee J-chol, Hong Il,
Koichi Hayakawa,
Kenpachi Fujimoto,
Motoi Okumura, Ichiro Otani,
Suk Studio

-11

편집인: 안상수, 금누리
편집위원: 이불, 윤인식, 유진상,
유한짐, 김기철
편집장: 문지숙
편집: 안영이
아트 디렉터: 안상수
포토 디렉터: 배병우
사진: 이재용, 이규정, 정영웅
인터뷰 도움: 김대우, 김미영,
김용대, 송희원, 이상은,
이정진, 조윤경, 이희선
디자인 도움: 고희, 김상도, 김신혁,
박서경, 박태근, 안병학,
임정혜, 천상현, 최준석
사진 도움: 구분창, 김대수, 김우일,
김장섭, 산스튜디오, 신현림,
황진, 홍성도, 시게오 아자이,
에릭 구테비츠
자료 도움: 박항률, 조민, 오종은
그림: 강동서, 김성남
글: 김지훈, 박영택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Contributing Interviewers:

Kim Doosup, Kim Hyungtae,
Shin MyeongEun,
Kim Yousun, Min Hyungsik,
Park Jechun, Lee Ilhoon,
Lee Yunyeong
Contributing Writers:
Kim Cheonggoo,
Jung Hyejung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t.:
Lee Yongseong
Editorial Office: Nalgaejip
Sodaemun P.O. Box 41, Seoul
120-600, Korea
Printing: Hanyoungmunhwa
Binding: Youngshinsa
Paper: Paper Plaza
Artmook: Published in
1 February 1997
Price: 1997 10,000 KRW /
1998 15,000 KRW /
1999 20,000 KRW
ISBN 89-7059-059-5

성북2동 260-88
 광고팀: 이용승
 등록 번호: 2-236
 등록 날짜: 1975년 7월 7일
 편집, 제작: 날개집
 120-600 서울 서대문우체국
 사서함 41
 인쇄: 한영문화사
 제본: 영신사
 분해, 출력: 삼화칼라
 종이: 페이퍼 플라자
 부정기 잡지:
 보고서\보고서. -11. 나나나
 값 1997년 10,000원 /
 1998년 15,000원 /
 1999년 20,000원
 ISBN 89-7059-066-8

-12
 편집인: 금누리, 안상수
 편집위원: 이불, 윤인식,
 유진상, 유한집, 김기철
 편집장: 문지숙
 편집: 안영이
 아트 디렉터: 안상수
 포토 디렉터: 배병우

-11
 Executive Editors: Ahn Sangsoo,
 Gum Nuri
 Contributing Editors: Lee Bul,
 Yoon Insik, Yoo Jinsang,
 Yoo Hanjim, Kim Kichul
 Editor in Chief: Moon Jisook
 Editor: Ahn Youngyi
 Art Director: Ahn Sangsoo
 Photo Director: Bae Bienu
 Designers: Ry Chihye, Lee Eunjae
 Photographer: Rhee Jaeyong,
 Lee Kyujeong,
 Cheong Yeongwoong
 Contributing Interviewers:
 Kim Daewoo, Kim Meeyoung,
 Kim Yongdae, Song Heewon,
 Lee SangEun, Lee Jungjin,
 Cho Yoonjung, Lee Heesun
 Contributing Designers:
 Ko Hong, Kim Sangdo,
 Kim Sinhyouk,
 Park Seokyung,
 Park Taekkeun,
 Ahn Byunghak,
 Leem Jeonghye,
 Choun Sanghyun,
 Choi Junseok
 Contributing Photographers:
 Koo Bohn-chang,
 Kim Daesoo,
 Kim Wooil, Kim Jangsup,
 San Studio, Shin Hyunnlim,

디자인: 신혜정
 사진: 이재용, 이규정, 정영웅
 인터뷰 도움: 김동식, 김두섭,
 김상철, 김신정, 김현필,
 박항률, 심광현, 안치운,
 임연숙
 디자인 도움: 고강철, 김소연,
 박장희, 고희, 류지혜, 박태희,
 손현지, 정영웅, 천상현,
 최준석, 한창호
 자료 도움: 김동식, 김세진,
 문학과 지성사, 승효상,
 윤희구, 학전
 그림, 설치: 강수미, 김기수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광고팀: 이용승
 등록 번호: 2-236
 등록 날짜: 1975년 7월 7일
 편집, 제작: 날개집
 120-600 서울 서대문우체국
 사서함 41
 인쇄: 한영문화사
 제본: 영신사

Hwang Jin, Hong Sungdo,
 Sigeo Aazai, Eric Gutteiewitz
 Photographic Courtesy of
 Park Hangryul, Cho Min,
 Oh JongEun
 Contributing Artists:
 Kang Dongsug, Kim Sunnam
 Contributing Writers:
 Kim Henry,
 Bahk Youngtaik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t.:
 Lee Yongseong
 Registration Number: 2-236
 Date of Registration: 7 July 1975
 Editorial Office: Nalgaejip
 Sodaemun P.O. Box 41,
 Seoul 120-600, Korea
 Printing: Hanyoungmunhwasa
 Binding: Youngshinsa
 Color Separation: Samhwa Color
 Paper: Paper Plaza
 artmook: bogoseo\bogoseo.
 -11. nanana
 Price: 1997 10,000 KRW /
 1998 15,000 KRW /
 1999 20,000 KRW
 ISBN 89-7059-066-8

분해, 출력: 삼화칼라
 종이: 문원지업사
 부정기 잡지: 보고서\보고서.
 -12. 다다다
 값 1997년 10,000원 /
 1998년 15,000원 /
 1999년 20,000원
 ISBN 89-7059-071-4
 -13
 편집인: 안상수, 금누리
 편집위원: 이불, 윤인식,
 유진상, 유한집, 김기철
 편집장: 문지숙
 편집: 심세중
 아트 디렉터: 안상수
 포토 디렉터: 배병우
 디자인: 신혜정, 고태영
 사진: 이재용
 인터뷰 도움: 고낙범, 박찬경,
 윤종강, 이동국, 이문재,
 최현무, 이민정, 이준영, 전사섭
 디자인 도움: 고희, 김미정, 김상욱,
 김신혁, 류지혜, 박재홍,
 안병학, 안삼열, 양성욱,
 양진하, 최준석, 한창호

-12
 Executive Editors: Gum Nuri,
 Ahn Sangsoo
 Contributing Editors:
 Lee Bul, Yoon Insik,
 Yoo Jinsang, Yoo Hanjim,
 Kim Kichul
 Editor in Chief: Moon Jisook
 Editor: Ahn Youngyi
 Art Director: Ahn Sangsoo
 Photo Director: Bae Bienu
 Designers: Shin Hyejung
 Photographer: Rhee Jaeyong,
 Lee Kyujeong,
 Cheong Yeongwoong
 Contributing Interviewers:
 Kim Dongshik,
 Kim Doosup, Kim Sangchul,
 Kim Sunjung,
 Kim Hyunpil,
 Park Hangryul,
 Shim Kwanghyun,
 Ahn Chiwoon, Lim Yeonsuk
 Contributing Designers:
 Ko Kangchul, Kim Soyeon,
 Park Janghee, Ko Hong,
 Ryu Chihye, Park Taehee,
 Son Hyunjee,
 Cheong Yeongwoong,
 Choun Sanghyun,
 Choi Junseok, Hang Changho
 Photographic Courtesy of
 Kim Dongsup, Kim Sejin,

그림 사진: 김수현, 김석란, 김태정,
 라펠레리, 로타 슈네프, 박서보,
 엄정호, 한국일보사
 편집 도움: 공진구, 안영이, 황일빈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광고팀: 류기영
 등록 번호: 2-236
 등록 날짜: 1975년 7월 7일
 편집, 제작: 날개집
 120-600 서울 서대문우체국
 사서함 41
 인쇄: 한영문화사
 제본: 영신사
 분해, 출력: 삼화칼라
 종이: 페이퍼 플라자
 부정기 잡지: 보고서\보고서.
 -13. 라라라
 값 1998년 10,000원 /
 1999년 15,000원 /
 2000년 20,000원
 ISBN 89-7059-076-5

Moonhakkwa Jisungsa,
 Seung Hsang,
 Yoon Pyongng, Hakchön
 Contributing Artists:
 Kang Sumi, Kim Ki-soo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artment:
 Lee Yongseong
 Registration Number: 2-236
 Date of Registration: 7 July 1975
 Editorial Office: Nalgaejip
 Sodaemun P.O. Box 41,
 Seoul 120-600, Korea
 Printing: Hanyoungmunhwasa
 Binding: Youngshinsa
 Color Separation: Samhwa Color
 Paper: Moonwon
 artmook: bogoseo\bogoseo.
 -12. dadada
 Price: 1997 10,000 KRW /
 1998 15,000 KRW /
 1999 20,000 KRW
 ISBN 89-7059-071-4
 -13
 Executive Editors: Ahn Sangsoo,
 Gum Nuri
 Contributing Editors: Lee Bul

-14
 편집인: 금누리, 안상수
 편집위원: 승효상, 이불, 윤인식, 유한집, 김기철
 아트 디렉터: 안상수
 디자인: 고태영, 신혜정
 포토 디렉터: 배병우
 사진: 이규정, 이재용
 인터뷰 도움: 고낙범, 김수진, 김연주, 김원방, 김현숙, 김현진, 김형태, 명선식, 박영재, 배준성, 테루토 소에지마, 이음, 정서영, 최두은
 디자인 도움: 김미정, 김신혁, 민병걸, 박민수, 박택근, 손익원, 송숙영, 안삼열
 편집 도움: 함영준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광고: 류기영
 등록 번호: 2-236
 등록 날짜: 1975년 7월 7일
 창간호 발행 날짜: 1988년 7월 1일

편집, 제작: 날개집
 121-160 서울 마포구 상수동 353-8 3층
 인쇄: 한영문화사
 제본: 영신사
 분해, 출력: 삼화칼라
 종이: 폐이퍼 플라자
 부정기 잡지: 보고서\보고서 -14 마마마
 값: 1998년 10,000원 / 1999년 15,000원 / 2000년 20,000원
 ISBN 89-7059-091-9

-15
 편집인: 안상수, 금누리
 편집위원: 승효상, 이불, 윤인식, 유진상, 유한집, 김기철
 편집: 심세중, 최두은, 함영준
 아트 디렉터: 안상수
 포토 디렉터: 배병우
 디자인: 신혜정, 고태영
 디자인 도움: 김미정, 손익원
 사진: 박준규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광고: 류기영
 등록 번호: 2-236
 등록 날짜: 1975년 7월 7일
 창간호 발행 날짜: 1988년 7월 1일
 편집, 제작: 날개집
 121-160 서울 마포구 상수동 353-8 3층
 인쇄: 한영문화사
 제본: 영신사
 분해, 출력: 삼화칼라
 종이: 종밀 폐이퍼
 부정기 잡지: 보고서\보고서 -15 바바바
 값: 1998년 10,000원 / 1999년 15,000원 / 2000년 20,000원
 ISBN 89-7059-095-1

-16
 편집인: 금누리, 안상수
 편집위원: 승효상, 유진상, 유한집, 김기철, 민병걸
 아트 디렉터: 안상수
 포토 디렉터: 배병우

디자인: 신혜정, 김민지
 인터뷰 도움: 강성원, 구정아, 김유선, 왕기원, 윤인식, 윤호섭, 이소영, 전미정
 디자인 도움: 김상욱, 김신혁, 류지혜, 박민수, 박선용, 박우혁, 안삼열
 편집 도움: 안영이
 사진: 이재용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광고: 류기영
 등록 번호: 2-236
 등록 날짜: 1975년 7월 7일
 창간호 발행 날짜: 1988년 7월 1일
 인쇄: 경일문화사
 분해, 출력: 삼화칼라
 부정기 잡지: 보고서\보고서 -16 사사사
 값: 1999년 10,000원 / 2000년 15,000원 / 2001년 20,000원
 ISBN 89-7059-106-0

Yoon Insik, Yoo Jinsang, Yoo Hanjim, Kim Kichul
 Editor in Chief: Moon Jisook
 Editor: Shim Sejoong
 Art Director: Ahn Sangsoo
 Photo Director: Bae Bienu
 Designers: Shin Hyejung, Koh Taeyoung
 Photographer: Rhee Jaeyong
 Contributing Interviewers: Koh Nakbeom, Park Chankyong, Yoon Jungkang, Lee Dongkook, Lee Moonjae, Ch'oe Yun, Lee Minjung, Lee Junyeong, Jeon Saseop
 Contributing Designers: Ko Hong, Kim Mijung, Kim Sanguck, Kim Sinhyouk, Ryu Chihye, Park Jaehong, Ahn Byunghak, Ahn Sam-reol, Yang Seonguk, Yang Jinha, Choi Junseok, Han Changho
 Photographic Courtesy of Kim Soohyun, Kim Seogran, Lapellerie, Lothar Schnepf, Park Seobo, the Hankuk Ilbo
 Contributing Artists: Kim Taejeong, Ohm Jungho
 Contributing Tape Transcribers: Kong Jinguo, Ahn Youngyi,

Hwang Il-bin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t.: Ryu Kiyoung
 Registration Number: 2-236
 Date of Registration: 7 July 1975
 Editorial Office: Nalgaejip Sodaemun P.O. Box 41, Seoul 120-600, Korea
 Printing: Hanyoungmunhwasa
 Binding: Youngshinsa
 Color Separation: Samhwa Color
 Paper: Paper Plaza
 artmook: bogoseo\bogoseo. -13. rarara
 Price: 1998 10,000 KRW / 1999 15,000 KRW / 2000 20,000 KRW
 ISBN 89-7059-076-5

-14
 Executive Editors: Gum Nuri, Ahn Sangsoo
 Contributing Editors: Seung Hsang, Lee Bul, Yoon Insik, Yoo Hanjim, Kim Kichul
 Art Director: Ahn Sangsoo

Designers: Koh Taeyoung, Shin Hyejung
 Photo Director: Bae Bienu
 Photographer, Lee Kyujeong, Rhee Jaeyong
 Contributing Interviewers: Koh Nakbeom, Kim Soo-jin, Kim Youngjoo, Kim Wobnang, Kim Hyunsook, Kim Hyunjin, Kim Hyungtae, Myeong Sunsik, Park Youngjae, Bae Joonsung, Teruto Soejima, Rhee Yoom, Chung Seoyoung, Choi Dooeun
 Contributing Designers: Kim Mijung, Kim Sinhyouk, Min Byunggeol, Park Minsoo, Park Taekkeun, Sohn Ikeon, Song Sookyoung, Ahn Samyeol
 Contributing Tape Transcribers: Ham Youngjune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t.:

Ryu Kiyoung
 Registration Number: 2-236
 Date of Registration: 7 July 1975
 Date of First Publication: July 1, 1988
 Editorial Office: Nalgaejip 3F, 353-8 Sangsu-dong Mapo-gu, Seoul 121-160, Korea
 Printing: Hanyoungmunhwasa
 Binding: Youngshinsa
 Color Separation: Samhwa Color
 Paper: Paper Plaza
 artmook: bogoseo\bogoseo. -14. mamama
 Price: 1998 10,000 KRW / 1999 15,000 KRW / 2000 20,000 KRW
 ISBN 89-7059-091-9

-15
 Executive Editors: Ahn Sangsoo, Gum Nuri
 Contributing Editors: Seung Hsang, Lee Bul, Yoon Insik, Yoo Jinsang, Yoo Hanjim, Kim Kichul
 Editor: Shin Sejoong, Choi Dooeun, Han Youngjune
 Art Director: Ahn Sangsoo
 Photo Director: Bae Bienu
 Designers: Shin Hyejeoung,

-17
 편집인: 안상수, 금누리
 편집위원: 승효상, 유진상, 유한집,
 김기철, 민병걸
 아트 디렉터: 안상수
 디자인: 신혜정
 포토 디렉터: 배병우
 사진: 이재용
 인터뷰 도움: 김문생, 김유선,
 김현직, 노형석, 왕기원,
 이종호, 이형주, 전동열,
 제환정, 홍혜연
 디자인 도움: 김미경, 김민지,
 류지혜, 송숙영, 안병학,
 예병익, 오성훈, 정병철,
 편집 도움: 안영이
 발행인: 김옥철
 발행처: 안그라픽스
 136-01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60-88
 광고: 류기영
 등록 번호: 2-236
 등록 날짜: 1975년 7월 7일
 편집, 제작: 날개집
 121-160 서울 마포구

상수동 353-8 3층
 부정기 잡지: 보고서\보고서
 -17 아아아
 값: 2000년 10,000원 /
 2001년 15,000원 /
 2002년 20,000원
 ISBN 89-7059-125-7

Koh Taeyoung
 Contributing Designers:
 Kim Mijung, Sohn Ik-weon
 Contributing artists:
 Park Joonkyu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t.:
 Ryu Kiyoung
 Registration Number: 2-236
 Date of Registration: 7 July 1975
 Date of First Publication:
 1 July 1988
 Editorial Office: Nalgaejip
 3F, 353-8 Sangsu-dong
 Mapo-gu, Seoul 121-160,
 Korea
 Printing: Hanyoungmunhwasa
 Binding: Youngshinsa
 Color Separation: Samhwa Color
 Paper: Chungwon Paper
 artmook: bogoseo\bogoseo.
 -15. bababa
 Price: 1998 10,000 KRW /
 1999 15,000 KRW /
 2000 20,000 KRW
 ISBN 89-7059-095-1

-16
 Executive Editors: Gum Nuri,
 Ahn Sangsoo
 Contributing Editors:
 Seung Hsang, Yoo Jinsang,
 Yoo Hanjim, Kim Kichul,
 Min Byungeol
 Art Director: Ahn Sangsoo
 Photo Director: Bae Bienu
 Designers: Shin Hyejung,
 Kim Minji
 Contributing Interviewers:
 Kang Sungwon, Koo Jeonga,
 Kim Yousun, Wang Kiwon,
 Yoon Insik, Yoon Hoseob,
 Lee Soyoun, Jeon Mijung
 Contributing Designers:
 Kim Sanguck, Kim Sinhyouk,
 Ryu Chihye, Park Minsoo,
 Park Sunyong,
 Park Woohyuk,
 Ahn Samyeol
 Contributing Tape Transcribers:
 Ahn Youngyi
 Contributing artists:
 Rhee Jaeyong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artment:

Ryu Kiyoung
 Registration Number: 2-236
 Date of Registration: 7 July 1975
 Date of First Publication:
 1 July 1988
 Printing: Kyungilmunhwasa
 Color Separation: Samhwa Color
 artmook: bogoseo\bogoseo.
 -16. sasasa
 Price: 1999 10,000 KRW /
 2000 15,000 KRW /
 2001 20,000 KRW
 ISBN 89-7059-106-0

-17
 Executive Editors: Ahn Sangsoo,
 Gum Nuri
 Contributing Editors:
 Seung Hsang, Yoo Jinsang,
 Yoo Hanjim, Kim Kichul,
 Min Byungeol
 Art Director: Ahn Sangsoo
 Designers: Shin Hyejung
 Photo Director: Bae Bienu
 Contributing Artists:
 Rhee Jaeyong
 Contributing Interviewers:
 Kim Moons, Kim Yousun,
 Kim Hyunjik, Roh Hyungsuk,
 Wang Kiwon, Yi Jongho,
 Lee Hyeongjoo,
 Jeon Dongyoul,
 Jae Hwanjung, Hong Haiyun

Contributing Designers:
 Kim Mijung, Kim Minji,
 Ryu Chihye, Song Sookyoung,
 Ahn Byunghak,
 Yea Byungouk, Oh Sunghoon,
 Jeong Byungchul
 Contributing Tape Transcribers:
 Ahn Youngyi
 Publisher: Kim Okchul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hn Graphics Ltd.
 260-88 Sungbuk 2dong,
 Sungbuk, Seoul 136-012,
 Korea
 Advertising Sales Dept.:
 Ryu Kiyoung
 Registration Number: 2-236
 Date of Registration: 7 July 1975
 Editorial Office: Nalgaejip
 3F, 353-8 Sangsu-dong
 Mapo-gu, Seoul 121-160,
 Korea
 artmook: bogoseo\bogoseo.
 -17 a.a.a
 Price: 2000 10,000 KRW /
 2001 15,000 KRW /
 2002 20,000 KRW
 ISBN 89-7059-125-7

교육에 적용하여 홍익대학교 시각 디자인과에서 «higg»(1991-1999), «soon»(1993-2003), «d»(1992-2001), «ㅎㅇㅅㄷ»(2006-2011), «acp»(1991-2003), «한글꼴 디자인»(1995-1998)을 출판했다.⁹

종합적 활동은 그래픽 디자인을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 또는 홍보 수단으로 여기던 1980년대에는 낯선 것이었다. 안상수는 인터뷰에서 초창기 안그래픽스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여러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보고서»는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 챙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디자이너의 출판 활동은 그래픽 디자이너 황부용¹⁰이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서울 올림픽 픽토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황부용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월간 «디자인»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했는데, 이후 그는 스튜디오를 설립,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책을 직접 출판하여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안상수의 활동은 2000년 ICOGRADA 서울 총회, 2001년 제1회 타이포잔치, 2002년 개인전 «한글.상상»을 거치며 절정에 이르고, «보고서»도 1980-1990년대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대표 프로젝트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선보인 안상수의 궤적이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했고, 실제로 «보고서» 이후 디자이너들의 출판 활동이 활발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출판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디자인 학과에서 강의, 세미나, 워크숍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는 소규모 스튜디오의

9. «higg»: 안상수와 박효신이 지도한 홍익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4학년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의 결과물. «soon»: 안상수, 박효신, 한창호가 지도한 4학년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의 결과물. «d»: 안상수가 지도한 3학년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의 결과물. «ㅎㅇㅅㄷ»: 안상수, 안병학, 김상욱, 최준석, 김성도, 한창호, 문장현, 오진경, 성기원이 지도한 3학년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의 결과물. «acp»: 안상수, 김주성과 쿠파 유니온의 제인스 크레이그가 공동 기획, 지도한 2학년 타이포그래피 수업의 결과물. «한글꼴 디자인»: 안상수와 한재준이 지도한 1학년 타이포그래피 수업의 결과물.

studied the psychological ability possessed by letter forms, based on academic research. Such studies allowed him to obtain a certain aesthetic sense which is generally reflected in his work. But his works, papers, other writings seem to reflect the mid and late-era of «bogoseo», and in the early days, the influence of computer seems to have been critical.

The feature embracing all these aesthetic background would be Ahn Sangsoo's native character. He is conscious of when and where he is living, he observes his surroundings, and has embraced 'the place' as his own identity. He has always traced the history and beauty of the region he lives in, and strived to portray them without any embellishment. In my opinion, the computer and the past of letters that Ahn had admitted of being his aesthetic background, resulted from his constant awareness of what he is doing, and where he is. Furthermore, the darkness and anxiety that could be witnessed in «bogoseo», and the defiant atmosphere, seem to reflect the Korean society in the 1980s when Koreans were working hard to achieve \$6,000 per capita GDP, and the movement for democracy was at its peak. It also seemed to reflect the 1988 Seoul Olympics for which all citizens worked together to host, the unstable life of underground artists, and hope and restlessness upon the coming 21st century.

4. Comprehensive Activity

If you check the publication rights of «bogoseo», Ahn Sangsoo is the organizer (editor), author, art director, and publisher. As other staff members were

독립 출판이 융성하고, 디자이너가 기획, 집필, 편집, 디자인, 출판에 관여하는 간행물이 다수 창간되었다.¹¹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에 《보고서》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역사적 변화 뒤에는 기록되지 못한 무수한 익명의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2010년대 독립 출판의 흐름에 《보고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 출판은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와 소규모 서점의 설립, 네덜란드 디자인의 유입, 독립 출판 박람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시작(2009)¹², 한국의 디자인 전공자 과잉 공급¹³, 경제 양극화,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 통신 기술의 발달 등 여러 맥락의 교차점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통해 선보인 안상수의 종합적 활동이 후배 세대에게 하나의 활동 모형이었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기반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보고서》 내부로 돌아오면, 안상수의 종합적 활동이 타이포그래피 실험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 상업 잡지의 관습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초기 《보고서》는 읽기 어렵지 않지만, 날개집에서 편집과 디자인을 맡은 후기 《보고서》는 읽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상 인터뷰 내용이나 편집자의 기술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텍스트의 형태적 차원이 언어적 차원을 압도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안상수는 종합적 활동을 펼쳤지만, 그 가운데 아트 디렉터라는 정체성이 다른 모든 정체성을 잠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잡지의 한계는 아니다. 역사적 평가는 그 시대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80-1990년대 한국 사회는 텍스트를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낮았고,

his employees or researchers, Ahn had been de facto in charge of the whole publication. [10] His comprehensive activity which took the lead in content production is found commonly in the books published by Ahn Graphics such as «Seoul City Guide» (1986), «Asian Art Motifs from Korea» vol. 1-12 (1986-1996), «nana project» (2004-2012), «rara project» (2006), «Historical Markers» (2008). Ahn had also applied his methodology to education and published «higg» (1991-1999), «soon» (1993-2003), «d» (1992-2001), «ㅎㅇㅅㄷ» (2006-2011), «acp» (1991-2003), «Hangeulggol Design» (1995-1998) at the Department of Visual Design, Hongik University.⁹

Comprehensive activity was deemed unfamiliar in the 1980s when graphic design was considered only as a p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a product or a means to promote it. In the interview, Ahn said since Ahn Graphics in the early days was a small design studio, the designers had to be polyvalent, juggling all kinds of tasks. Among them, «bogoseo» was a new task, so Ahn had to be in charge of every step of the way. He added that the notion of publication by designer was first proposed by graphic designer Hwang Buyong.¹⁰ Well known for his Seoul Olympics pictogram, Hwang had worked as art director for the magazine «Monthly Design» from 1977 until 1980. Afterwards, he founded a studio and published books for designers and had influenced many graphic designers.

Professionally speaking, Ahn Sangsoo reached his peak during the 2000 ICOGRADA Seoul General Assembly, 2001 1st TypoJanchi, 2002 solo exhibition «Hangeul.imagination», and «bogoseo» was appraised as the major

10.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 1951년생, 서울대학 응용미술학과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명지대학교에 부임했으나 사안을 위해 7년 뒤 퇴임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월간 《디자인》의 아트 디렉터로 일했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픽토그램을 디자인했다. 11.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는 종합적 활동을 펼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DT»(2005-2014), «디자인플렉스 저널»(2008), «D+»(2009-2010), «도미노»(2011-2016),

9. «higg» Output of senior editorial design studio at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upervised by Ahn Sangsoo and Park Hyosin. «soon»: Output of senior editorial design studio, supervised by Ahn Sangsoo, Park Hyosin and Han Changho. «ds»: Output of junior editorial design studio, supervised by Ahn Sangsoo. «ㅎㅇㅅㄷ»: Output of junior editorial design studio, supervised by Ahn Sangsoo, Ahn Byunghak, Kim Sang, Choi Junseok, Kim Sangdo, Han Changho, Moon Janghyun, Oh Jinkyung, and Sung Kiwon. «acp»: Output of sophomore typography class, co-organized and supervised by Ahn

고전적 타이포그래피 관습이 표현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안상수의 전위적 타이포그래피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선택이었다. 동시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범위는 그런 극단적 도전을 관습을 밀어내고 만들어낸 자리이다.

5. 결론

«보고서»가 창간된 지 약 30년이 지났다. 이 잡지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역사에서 큰 변곡점이었지만, 지금 보면 투박하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사실 본 연구에서 밝힌 안상수의 미적 배경도 나에게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오늘날 컴퓨터는 나의 손을 떠나지 않는 삶의 일부이며, 초고해상도 디지털 기기 제공하는 감각은 실제 세계의 그것보다 더 사실적이다. 캐드로 디자인된 안상수체의 기하학적 형태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가 작업의 소재로 삼고 있는 문자의 과거도 동시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상식적이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서»를 둘러싼 안상수의 종합적 활동도 기대 감소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그래픽 디자이너의 일반적 생존 방식이 되어 이제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보고서»의 미감은 여전히 흥미롭다. «보고서»는 이제 동시대의 미감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지만, 과거를 향하는 그 파괴적 동력은 지금 보아도 독창적이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호를 거듭하면서 해체의 대상을 바꿔가며

project of Korean graphic design in the 1980–1990s. Ahn's trajectory based on «bogoseo» was obviously a great influence on the next generation, and in effect, designers' publication became popular ever since «bogoseo». From the late 1990s, design agencies began the publishing business, and many university departments of design also began publishing lectures, seminars, workshop notes into books. In the 2010s, small-scale studios were successful with independent publication, and there were numerous publications newly launched, of which the designer was planning, writing, editing, and designing.¹¹

At the origin of such change, obviously it is not only «bogoseo» which played the role of guiding light. Behind historical change, there are countless anonymous attempts which could not be documented.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bogoseo» was the direct influence on the increasing flow of independent publication in the 2010s. Independent publication is a phenomenon that occurred at the crossroads of various factors; small design studios and small bookstores in increase, the introduction of Dutch design, the launch of independent book fair Unlimited Edition (2009)¹², over-supply of Korean design majors¹³, economic polarization, miniaturization of digital device, an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etc. But in the end, Ahn Sangsoo's comprehensive style shown via «bogoseo» was a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 and it certainly became a basis on which the younger generation began their activities.

Coming back to our discussion of «bogoseo», Ahn's comprehensive

12. 2009년 시작된 서울의 독립 출판 페어, 서울의 서점 유이머인스에서 기획했으며, 2016년 8월에 16,000명이 방문했다.
1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전략 2020 보고서» 참조.

Sangsoo, Kim Joosung, and Cooper Union's James Craig. «Hangeulggol Design»: Output of freshman typography class, supervised by Ahn Sangsoo and Han Jaehoon.
10. Korean graphic designer, artist. Born in 1951.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Visual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wang worked as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 resigned after 7 years for his own business plans. From 1977 to 1980, he worked as art director for the monthly magazine «Monthly Design», and he designed the pictograms for 1986 Seoul Asian Games and 1988 Seoul Olympics.

조형 감각을 발전시키는 모습은 모범적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한국 그래픽 디자인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가 제시한 종합적 활동은 이제 일반화되었지만 한국 그래픽 디자인을 가속시킨 동시대 그래픽 디자이너들 활동의 초기 형태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이어나갈 것은 온 힘을 다해 관습에 대항하는 실천력이라고 생각한다.

«보고서»와 안상수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미래에 이뤄질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작업에, 나아가 1980-1990년대 활약한 앞선 세대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선 세대의 업적에 관한 정확한 평가는 다음 세대의 기반이

activity seems to be at odds with typographic experiments in some aspects. The early «bogoseo» which displays the process of distancing from the customs of commercial magazines, is not difficult to read, but the late-era «bogoseo» which is edited and designed by Nalgaejip highly lacks readability. In fact, it is impossible to verify the interview content or the editor's voice. The morphological level of the text had overwhelmed the linguistic level. That is, Ahn Sangsoo had been active synthetically, but his identity as art director had encroached on all the other identities. But this is not the limit of this magazine. Historical assessment should be made in the context of the time. The Korean society in the 1980-1990s lacked the ability to understand what viewing a text is, and classic typographical customs were restricting expression. Therefore, Ahn's avant-garde typography was a required choice of the epoch. The scope of expression that we, contemporary graphic designers, take for granted nowadays, is what radical challenge had achieved by pushing away old habits.

5. Conclusion

It has been 30 years since «bogoseo» was first published. This magazine marked the inflection point in the Korean history of typography, but it looks rather crude and even reckless,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In fact, what Ahn Sangsoo had explained as his aesthetic background did not quite appeal to me. Today's computer is basically a part of my life since my hands are constantly on it, and ultra high resolution digital device provides me with even more

11. Since the late 2000s, the number of graphic designers active in various fields have increased in Korea. For example, in publications such as «DT» (2005-2014), «Designlux Journal» (2008), «D+» (2009-2010), «Dominio» (2011-2016), «Graphic» (2007-present), the graphic designer is in charge of multi-tasks: to organize, write, edit, translate and publish. There were also such cases in the past, but the other tasks were rather subsidiary to graphic design. But in the late 2000s, these other tasks were done within the scope of graphic design, and this is the clear difference from the past.

될 테니까 말이다.

참고 문헌

김병조, 안상수. <안녕 안 치홀트, 안녕 치홀트>. «글짜씨» 제6권, 2호

(2014년 12월): 207-222.

김형진, 최성민. «그래픽 디자인, 2005-2015, 서울: 299개 어휘».

서울: 작업실 유령, 2016.

세이분도 신코샤. «Idea: 한국 그래픽 디자인 특집» 337호 (2004년 11월).

안그래픽스. «안그래픽스 30년». 파주: 안그래픽스, 2015.

안상수. «2015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52: 안상수».

김종균 기획.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안상수. «구텐베르크 갤러리: 세종과 구텐베르크 사이에서».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그래픽서적예술대학, 2012.

안상수. «디자인 앤드 디자이너 35: 안상수». 파리: 피라미드, 2005.

안상수. «바바 프로젝트 3: 안상수». 파주: 안그래픽스, 2008.

안상수. «안상수». 청두: 사천미술출판사, 2006.

진중권.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파주: 창비, 2015.

번역: 김솔하

realistic sensation than the actual world does. The geometrical shapes of Ahnsangsoo font designed with CAD is no longer unfamiliar. His theme of delving into the past of letters has become a common theme for contemporary graphic designers, and on the other hand, it appears rather overly ideological. Furthermore, Ahn's comprehensive activity around «bogoseo» has become the norm of survival for contemporary graphic designers, so it does not seem special anymore.

However, the aesthetics of «bogoseo» is still interesting. «bogoseo» is now slightly off the contemporary aesthetic track, but its destructive energy toward the past is original even now. Changing the object of deconstruction, the issues from 1988 until 2000 are exemplary in developing the formative sense. And this aspect is also a slice of Korean history of graphic design. The comprehensive style that Ahn had proposed is now generalized. Such early form of contemporary graphic designers' working style has historical value in that Korean graphic design made great progress in a relatively short-term period. What we shall succeed to is actual defiance against customary hindrances.

Extensive assessments on «bogoseo» and Ahn Sangsoo will be made in the future. I hope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such work, as well as for studies on the former generation who were active in the 1980-1990s in Korea. I believe the precise assessment on the former generation's works would become the basis for the next generation to work on.

Bibliography

- Ahn Graphics. «Ahn Graphics 30 Years». Paju: Ahn Graphics, 2015.
- Ahn Sangsoo. «2015 Korean Modern Art History Interview Dictation Series 252: Ahn Sangsoo». ed. Kim Jongkyun. Seoul: Arts Council Korea, 2015.
- Ahn Sangsoo. «Ahn Sangsoo». Chengdu: Sacheon Art Publisher, 2006.
- Ahn Sangsoo. «baba project 3: Ahn Sangsoo». Paju: Ahn Graphics, 2008.
- Ahn Sangsoo. «Design & Designer 35: Ahn Sangsoo». Paris: Pyramid, 2015.
- Ahn Sangsoo. «Gutenberg Galaxie: Zwischen Sejong und Gutenberg». Leipzig: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 2012.
- Ahn Sangsoo, Kim Byungjo. «Hello Tschichold, Bye Tschichold». «LetterSeed» vol. 6 no. 2. (December 2014): 207–222.
- Jin Joongwon. «The secrets of the artists Jin Joongwon met». Seoul: Changbi, 2015.
- Kim Hyungjin, Choi Sungmin. «Graphic Design, 2005~2015, Seoul: 299 Terms». Seoul: Workroom Specter, 2016.
- Seibundo shinkosha. «Idea: graphic design in Korea issue» no. 337 (November 2004).